

2022
**전국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례
조사**

청년네트워크구축사업

청년이
바라는
지역문화예술 교:감

제 출 문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2 전국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사례」
최종보고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조영미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누림연구소장 박숙자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연구부장(책임연구원) 이영근
연구원 오경진
보조연구원 조성호, 김효자
홍승희, 전해인

CONTENTS | 목차

1장 조사 개요

2장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3장 심층면담

4장 전문가 심층 의견

조사 개요	1
1) 조사의 목적	2
2) 조사의 내용	2
3) 서베이 설문조사	2
4) 충남 청년예술인 대상 심층면담	4
5) 전문가 심층 의견	5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빈도표)	7
1) 예술활동	8
2) 생활·복지	19
3) 정서·건강	23
4) 예술정책·예술인 복지정책	34
5) 개인 관련 사항	46
6) 거주지역·예술활동분야 교차표	48
7) 거주지역·종분류 교차표	49
제안과제 외 예비청년 예술인 특이점	50
1) 교육과 향후 진로	50
2) 생활·가치관	54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60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62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64
예술대학 교육과정 (예비예술인)	70
충남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71
예술관 및 자기인식	72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76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77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78
청년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79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80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81
부당대우	81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82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 복지, 제도	83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84

CONTENTS | 목차

5장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6장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설문(인터뷰) 조사 결과도출,
발전방향 등 제언

부록 - 설문지, 면담지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89
1) 지역별 청년예술인 인원수	90
2) 지원건수·예산·분야·정책	91
3)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예산 등 향후 로드맵	92
4)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93
5) 다른 시·도별 예산 현황	94
6)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95
7)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101
8)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정책	103
9)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운영 흐름(2016-2019)	104
10)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 청년예술정책	105
11) 청년예술인 정책사업 사례 도시 (부산, 인천, 서울, 광주, 제주)	107

조사연구의 필요성	116
연구내용의 요약	117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118
정책제언 및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4

CONTENTS | 표 목차

<표 1> 서베이 설문조사	2
<표 2> 청년예술인 심층 면담 주요 질문 내용	4
<표 3> 현재 활동 예술분야	8
<표 4> 현재 주요 예술활동 유형	9
<표 5> 예술활동 경력	10
<표 6> 출신 대학 소재지	10
<표 7> 주요 예술창작 활동지역	11
<표 7-1> 충남에서 활동하는 이유	12
<표 7-2> 충남 이외 지역에서 활동 이유	13
<표 8>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횟수 (2022년기준)	14
<표 9>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 여부	15
<표 10> 예술활동 관련 도움받는 주 경로	16
<표 11>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 여부	17
<표 12>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여부	17
<표 12-1>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	18
<표 13> 거주자 유형(가구)	19
<표 14> 거주 유형(집)	19
<표 15> 수입에 대한 만족도	20
<표 16>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20
<표 17> 부채(빚) 여부	21
<표 17-1> 부채(빚) 원인	21
<표 18>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	22
<표 18-1> 예술 경력단절 이유	22
<표 19> 정서상태 빈도	23
<표 20>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24
<표 21>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25
<표 22> 현재 건강상태	26
<표 23> 최근 1년 건강 악화로 작업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26
<표 24>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	27
<표 24-1>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 이유	27
<표 25> 예술인 신문고 인지 여부	28
<표 26> 부당대우 경험 여부	29
<표 27>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30
<표 28>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에 대한 의견	31
<표 29>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	32
<표 30>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33
<표 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	33
<표 3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34
<표 32-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지 않은 이유	34
<표 33>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	35
<표 34> 지원사업 참여 여부	36
<표 34-1>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36

<표 35> 충청남도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37
<표 36>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중점 사업	38
<표 37> 충청남도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 정책	38
<표 38> 주 창작활동 장소	40
<표 39> 창작공간의 필요성	41
<표 40>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	41
<표 41> 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창작/연습/집필공간)에 대한 의견	42
<표 42> 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에 대한 의견	42
<표 43> 예술활동 방식	43
<표 44> 온/오프라인 활동여부	43
<표 44-1> 온라인 활동지	44
<표 45>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44
<표 45-1>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	45
<표 46> 성별	46
<표 47> 연령	46
<표 48> 현재 거주지역	46
<표 49> 졸업학교의 전공분야(예술분야장르)	47
<표 50> 거주지역별 활동예술분야	48
<표 51> 거주지역 * 중분류 교차표	49
<표 52>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50
<표 52-1>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의 목적	50
<표 53> 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필요 교과목	51
<표 53-1> 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필요 교과목('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2
<표 54>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52
<표 55> 예술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의사	53
<표 56> 졸업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지역에서 활동 하려는 이유	53
<표 57> 부채 유무	54
<표 57-1> 부채의 원인	54
<표 58> 소비생활 중 가장 큰 부담	55
<표 59>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예비예술인)	56
<표 60>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	57
<표 61>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57
<표 61-1>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58
<표 62> 지역별 청년예술인과 전체예술인 비교	90
<표 63>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93
<표 64> 다른시도별 문화예술대상 지원 예산현황	94
<표 65> 충청권 청년예술대상 지원 예산현황	95
<표 66> 수도권 및 광역시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96
<표 67> 광주 및 전라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98
<표 68> 경상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99
<표 69> 중부 및 제주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100
<표 70> 문체부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100

CONTENTS | 표 목차

<표 71>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101
<표 72>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정책	103
<표 7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104
<표 74>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 청년예술정책	105
<표 75> 부산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107
<표 76>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109
<표 77>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110
<표 78>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111
<표 79> 제주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113
<표 80> 예술인 실태조사	116
<표 81> 지원사업 예산	117
<표 82> 청년예술인 대비 지원사업수혜비율	120
<표 83> 충남도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표	120
<표 84> 충남도 향후 10년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추진계획표(안)	120
<표 85> 충남도를 떠나려는 청년예술인 사유	121
<표 86> 충남도 도시별 규모에 따른 문화인프라 확충계획	121
<표 87> 타 시도 청년예술인 조직운영	122
<표 88> 「청바지」목표달성을 위한 2030 연도별 로드맵	123

CONTENTS | 그림 목차

<그림 1> 출신 대학 소재지	10
<그림 2> 주요 예술창작 활동지역	11
<그림 3> 문화예술교육활동 중사 시 활동시설	18
<그림 4> 거주자 유형	19
<그림 5>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20
<그림 6>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25
<그림 7>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에 대한 의견	31
<그림 8> 주 창작활동 장소	40
<그림 9> 졸업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지역에서 활동 하려는 이유	53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1장 조사개요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개요

조사의 목적

충남 2030문화비전 선도시책 '청년예술인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문헌조사 등 기초연구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지역 예술대학에서 배출하는 청년예술인은 많으나 일자리, 복지 등의 문제로 충남에 자리 잡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남 청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충남 청년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조사의 내용

조사지역 : 충청남도

조사대상

- 충남 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417명
- 제안과제 외 충남 예비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51명
- 충남 청년예술인 대상 심층면담 7명
- 충남 전문가 그룹 심층 인터뷰 5명

조사 범위 : 2022년 현재 기준

조사 방법 : 유무선 인터뷰, 온라인설문 등

조사 추진절차

- 1차 청년예술인 설문
예술활동, 생활복지, 정서·건강, 예술정책·예술인 복지정책, 교육과 향후 진로
- 2차 청년예술인 심층면담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충남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 3차 전문가 인터뷰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청년 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부당대우,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 복지, 제도, 소도시의 예술 격차 해소 방법,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서베이 설문조사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표본설계방법 수행
- 통계전문가에 의한 표본 설계 방법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높임
<표 1> 서베이 설문조사

구분	내용
조사방법	예술인, 예비예술인: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함 *사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섭외, 충남의 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카드뉴스게재, QR코드를 보내어 설문진행
조사지역	충청남도
조사대상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표본크기	· 충남 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417명 · 제안과제 외 충남 예비청년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51명
표본추출	무작위추출법, 층화표본추출법, 눈덩이표집을 혼합 적용

1. 조사 설계

조사지역과 대상 설정 : 충청남도 거주자로서, 충청남도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예비예술인

- 청년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예비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관련 대학 또는 학과 졸업예정자로 정의함

예술인의 범위 : 충청남도 거주 예술인 또는 충청남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표본크기 설정 : 유효표본 총 400명 내외를 목표로 하였음

설문지 작성 : 예술인 복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조언으로 설문지 설계 및 작성 함. 작성한 설문지를 수회에 걸쳐 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충남예술인에 맞춰 설문문항 하나하나 검토하였음

2. 표본 확보

충남 지역 내 소재한 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어 예술분야별로 모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층화표집을 적용, 표본 추출

3. 설문조사 진행

조사원 교육 : 조사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조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함

파일럿조사(사전테스트)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설문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피드백을 받아 설문지 수정 및 보완함

본조사 : 충남 청년예술인 및 예비청년예술인의 조사 프레임을 추출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어 응답하도록 요청함

4. 결과 분석

- 청년예술인 417명 및 예비청년예술인 51명의 표본 확보
- 기초데이터 코딩, 데이터 가공(데이터 클리닝 등) 후 통계프로그램에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 추정 후 데이터 분석
- 도정운영 방향을 따르고 정책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남내 문화재단 및 외부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침
- 자문회의 등 지역 문화예술인 및 시민 의견 수렴
-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조사결과를 통한 충남의 예술인 복지 실태를 반영하여 충남형 예술인 복지정책 제안예정

※ 결과표 일러두기

- 설문조사 결과표에서 문항별 응답자 합계가 예술인 417명을 초과 하는 경우는 다중 응답 질문지에 대한 합산 결과임
- 조사 데이터는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베이 설문조사의 특성

- 서베이(survey)란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임. 서베이의 목적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규모 응답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는데 있음
- 서베이 설문조사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양의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많은 변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통계방법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
- 다만, 서베이 설문조사는 독립변인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인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확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님. 따라서 통계적 결과에 매몰 되어 모든 원인과 결과를 환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충남
청년예술인
대상 심층면담**

면담기간 : 2022년 6월 24일 ~ 7월 1일

면담대상 : 각기 다른 예술분야의 면담 대상 7명

- 예술인 5명, 예비예술인 2명 면담 완료

면담방법 : 조사원들이 최소한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응답자의 생각을 깊고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면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연구 문제와 일관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태로 반 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활용

면담내용 :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질문

면담대상 : 예술인- 시각(1), 국악분야(1), 음악(1), 기획(1), 웹툰(1), 예비예술인- 시각(1), 무용(1)

<표 2> 청년예술인 심층 면담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공통 ·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 예술활동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 예술활동 외의 일자리를 위한 계획과 경험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공통 ·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 예술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예비예술인 · 교내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공통 · 청년예술인의 정의 ·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 사업 · 충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예술대학 교육과정	예비예술인 · 예술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제언
충남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공통 · 충남에서 활동하는 장단점
예술관 및 자기 인식	공통 · 예술가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 예술가로서의 고민 · 예술가로서의 향후 계획

**전문가
심층 의견**

심층인터뷰기간 : 2022년 7월 16일~25일

인터뷰 대상 : 분야별 인터뷰 5명

- 무용 전문가 전문가, 문학 전문가 전문가, 시각 전문가 전문가,
- 교육예술 전문가, 음악 전문가 전문가

인터뷰 방법

- 1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요약, 청년예술인 심층면담내용 등

질문 내용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 청년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 부당대우
-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 복지, 제도
- 소도시의 예술 격차 해소 방법
-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2장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청년예술인 설문조사 (빈도표 및 그래프)

예술활동

<표 3> 현재 활동 예술분야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 충남 청년예술인조사		2022.07현재 예술인활동 등록한 충남 20-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술·디자인	141	29.5	166	15.3
문학(출판)	58	12.1	77	7.1
사진	56	11.7	4	0.4
만화(웹툰포함)	49	10.3	453	41.7
음악(양악, 클래식)	40	8.4	80	7.4
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27	5.6	85	7.8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22	4.6	36	3.3
무용	20	4.2	54	5.0
건축	10	2.1	-	-
방송연예(대중음악제외)	10	2.1	43	4.0
국악분야	8	1.7	88	8.1
공예	37	7.7		
계	478	100.0	1,086	100.0

* 중복 선택 가능

- 2022년 7월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한 충남지역 20-30대 예술인은 총 1,086명으로 음악 분야 예술인이 41.7%(453명)로 가장 많고, 미술·디자인 15.3%(166명), 국악분야 8.1%(88명), 연극(뮤지컬, 오페라포함) 7.8%(85명), 만화(웹툰 포함) 7.4%(80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음악 분야 예술인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타 장르에 비해 지역 학부 전공 졸업자의 예술 활동 거주 지역, 예술 활동 경력 인정 등에 있어서의 반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지역 청년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분야별 설문 응답자 비율은 미술·디자인이 141명(29.5%)으로 가장 많고, 문학(출판)이 58명(12.1%), 사진 56명(11.7%) 순으로 응답
- 반면에 만화, 음악, 연극, 영화 등의 예술활동분야는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응답한 충남지역 청년예술인 중 54.1% 이상이 미술·디자인, 문학(출판), 사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최근 5년 충남지역 예술활동 증명 완료 현황(2018~2022)을 보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충남지역이 창작예술가로서 청년예술인 진입 접근성이 용이하며, 활동영역의 확대, 타 장르 예술활동과 네트워크 및 협업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을 보여줌.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거점,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의 제약에서도 타 장르에 비해 영역 보존성이 높음. 한편, 만화, 음악, 영상 등 예술활동 분야 빈도가 낮은 것은 충남 내 관련 창작거점 및 관련 분야 종사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4> 현재 주요 예술활동 유형

항목	빈도	비율(%)
창작예술가	217	46.1
실연예술가	93	19.5
예술기획자	42	8.5
문화기획자	41	8.5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	21	4.2
예술강사	62	12.7
기타	2	0.4
합계	478	100.0

* 중복 선택 가능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유형은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가 46.1%로 가장 많고, 이어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19.5%,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12.7% 순이며, 예술기획자(큐레이터, 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8.5%와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 8.5%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빈도분석

응답자 설문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청년예술인 분포 빈도가 낮은 것은 지역 학부 전공 졸업자들의 활동 기반이 취약함을 나타낸 준다고도 볼 수 있음.

* 지역 대학 내 관련 전공 졸업생의 진로 및 활동영역에 대한 표본조사의 필요성 제기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5> 예술활동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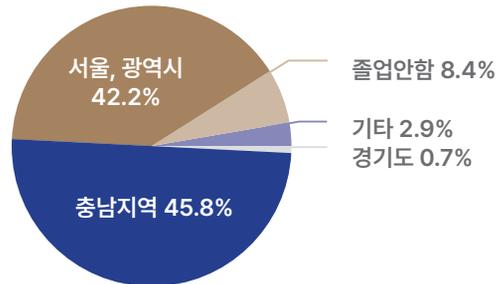
	예술활동 전체경력		충남지역 활동경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년 미만	39	9.4	100	24.0
1-3년 미만	138	33.1	167	40.0
3-6년 미만	149	35.7	85	20.4
7-9년 미만	47	11.3	44	10.6
10년 이상	44	10.6	21	5.0
합계	417	100.0	417	100.0

- 예술활동 전체경력으로는 1~3년미만(138명), 3~6년미만(149명)이 가장 많고, 대체적으로 1~6년 사이임
- 충남지역에서의 활동경력 역시 1~3년(167명)이 가장 많으며, 이어 1년 미만(100명), 3~6년미만(85명) 순으로,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더 적은편임

▶빈도분석

- * 청년예술인 경력에 있어서 1~3년차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졸업 후 관련 활동이 캠퍼스 및 거주지 근접한 친연고지를 선호하기 때문임
- *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진로 유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1~3년차 예술활동에 있음을 의미함

<그림 1> 출신 대학 소재지



<표 6> 출신 대학 소재지

항목	빈도	비율(%)
충남지역	191	45.8
서울, 광역시	176	42.2
졸업하지 않음	35	8.4
경기도	3	0.7
기타	12	2.9
합계	4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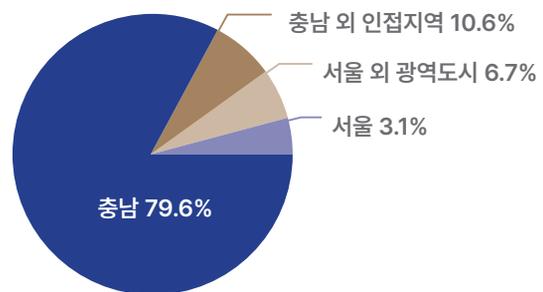
- 응답한 충남지역 청년예술인 중 충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예술인은 191명(45.8%)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서울 또는 광역시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예술인은 176명(42.2%)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지역 청년예술인 중 충남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예술인과 그렇지 아니 한 청년예술인의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 지역 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창작활동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활동영역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임

* 서울 및 광역시(42.2%), 경기도(0.7%) 출신대학교 응답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충남지역의 활동영역과 비교적 인접지역이며, 관련 분야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 지원사업 수혜 등 창작 환경 조성, 정착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2> 주요 예술창작 활동지역



<표 7> 주요 예술창작 활동지역

항목	빈도	비율(%)
충남	332	79.6
충남 외 인접지역	44	10.6
서울 외 광역도시	28	6.7
서울	13	3.1
합계	417	100.0

- 응답한 충남지역 청년예술인 중 활동지역이 충남인 청년예술인이 332명(79.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충남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충남 청년예술인은 85명(20.4%)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의 예술 활동지역은 대부분 충남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7-1> 충남에서 활동하는 이유

항목	빈도	비율(%)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	151	34.7
데뷔(첫활동)한 곳이라서	66	15.2
거주지가 충남이라서	6	1.4
집값이 저렴해서	41	9.4
가족이 살고 있어서	108	24.8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	26	6.0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16	3.7
다른 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17	3.9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4	0.9
합계	435	100

* 332명(79.6%) 응답. 중복 선택 가능

- 충남 청년예술인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151명 (34.7%))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가족이 살고 있어서'가 108명(24.8%), 데뷔(첫활동)한 곳이라서 66명 (15.2%)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충남이 예술활동지역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충남에서 태어나 충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7-2> 충남 이외 지역에서 활동 이유

항목	빈도	비율(%)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20	12.7
데뷔(첫활동)한 곳이라서	15	9.5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	27	17.1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34	21.5
일자리가 많아서	20	12.7
다른 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26	16.5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14	8.9
기타(전공대학 주변으로 이동하다보니, 경쟁자가 적다)	2	1.3
합계	158	100.0

* 85명(20.4%) 응답. 중복 선택 가능

- 충남 청년예술인이 충남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로는, 충남 이외 지역이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가 34명(21.5%),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가 27명(17.1%), '다른 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가 26명(16.5%)인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지역 청년예술인 중 충남 외 지역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충남청년예술인의 경우, 충남 외 지역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이유가 예술활동공간이 여유가 있고, 지원이 많으며, 다른 예술인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지역에도 예술활동 관련 지원,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된다면 충남 외 지역의 예술인들을 충남 내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충남 지역 청년 예술인 중 졸업생 청년 예술인의 경우 서울, 광역시 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충남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태어난 곳이 충남이고 가족이 충남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남 외 지역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충남 외 지역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이유가 예술활동공간이 여유가 있고, 지원이 많으며, 다른 예술인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충남 지역에 예술활동 관련 지원,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된다면 충남 외 지역의 예술인들을 충남 내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8>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횟수 (2022년기준)

항목	빈도	비율(%)
0회	47	11.3
1-5회	221	53.0
6-10회	83	19.9
11-15회	30	7.2
16-20회	19	4.6
20회 이상	16	3.8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2022년 기준으로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 회수가 1-5회인 청년예술인이 221명(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 회수가 6-10회인 응답자가 83명(19.9%)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72.9% 이상이 1년 동안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 회수가 1-10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눈여겨 볼 자료는 주 활동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 일수가 없는 청년예술인이 47명(11.3%)으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 청년예술인의 활동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빈도에서 지역 예술활동분야, 시각(*미술/디자인29.5%/사진11.7% 등), 문학(12.1%), 만화(8.4%) 분야 청년 예술인 비중이 높은 것은, 전문창작자 진입 시기에 작품 활동, 작품 발표, 참여 일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학 전문가 활동의 경우 발표지면, 시각 전문가의 경우

는 전시 공간 등 제약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진입 초기 활동은 가장 왕성한 활동 시기이기도 하면서 활동분야 환경 여건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일 수 있음



예
31.4%



아니오
68.6%

<표 9>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 여부

	빈도	비율(%)
예	131	31.4
아니오	286	68.6
합계	417	100

-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 중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86명(68.6%)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 중 예술인 단체 및 협회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131명(31.4%)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 중 많은 상당 비중의 청년예술인이 예술인 단체 및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10> 예술활동 관련 도움받는 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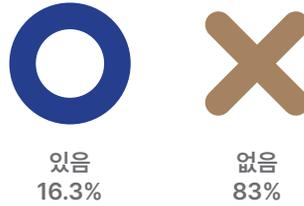
관련 협회/협의회/연대/노조 등을 통해	73	8.5
선후배/교수 등 학교 관계망을 통해	187	21.8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	144	16.8
다른 예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117	13.6
정부/공공기관 등의 소개를 통해	77	9.0
신문/잡지/인터넷 등 매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87	10.1
예술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통해(SNS 등)	167	19.5
기타(예술인 친구를 통해, 멘토를 통해, 스승님, 스스로 알아봄 등)	6	0.7
합 계	858	100.0

* 중복 선택 가능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예술활동 관련 도움을 받는 주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선후배/교수 등 학교 관계망을 통해' 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87명(2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예술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통해'라고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이 167명(19.5%),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라고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이 144명(16.8%), '다른 예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라고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이 117명(13.6%), '신문/잡지/인터넷 등 매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라고 응답한 충남 청년예술인이 87명(10.1%)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은 학교 관계망으로 통해 예술활동 관련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술활동 관련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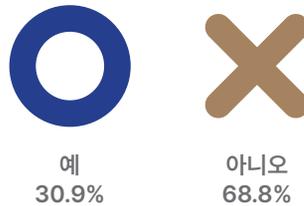
- * 청년예술인의 예술인 단체 협회 가입은 감소 추세임
- * 위계적 조직 단체에 가입하기보다 개인이나, 기획 프로젝트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예술활동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음
- * 청년예술인 창작환경 특성 상, 예술활동 정보 취득은 진입 초기에 소속 학교 전공 학과 선후배, 교수 등 학교 관계망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 매체나 공공의 문화예술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취득 비중이 적은 것은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강화와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 정보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표 11>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있음	68	16.3
없음	346	83.0
무응답	3	0.7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은 68명(16.3%)이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예술청년인은 346명(83%)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예술인이 취득하지 않은 청년예술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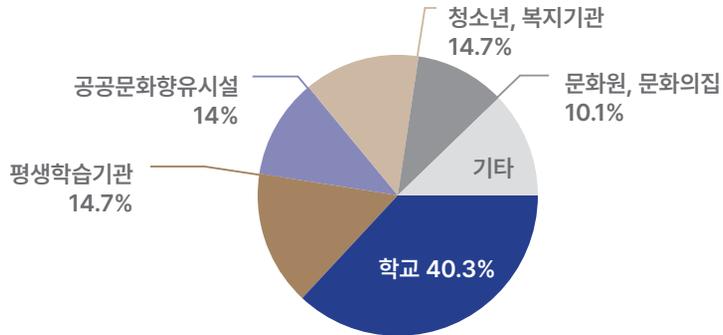
<표 12>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예	129	30.9
아니오	287	68.8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종사하는 청년예술인이 129명(30.9%)이고 종사하지 않는 청년예술인이 287명(68.8%)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 중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청년예술인이 그렇지 아니한 청년예술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는 충남 청년예술인 129명(30.9%) 중 문화예술교육자격을 취득한 충남 청년예술인은 68명(16.3%)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그림 3>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



<표 12-1>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

항목	빈도	비율(%)
학교	52	40.3
평생학습기관	19	14.7
공공문화향유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8	14.0
청소년/복지기관	19	14.7
문화원, 문화의 집	13	10.1
유관기관(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6	4.7
기타	2	1.6
합계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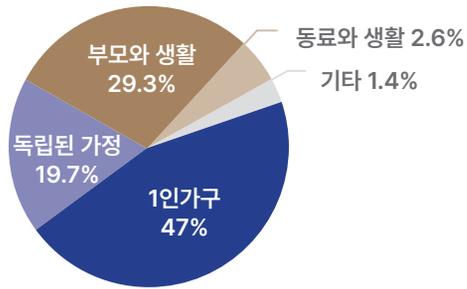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 시 활동시설로는 학교 40.3%(52명)로 가장 많았고, 평생학습 기관과 청소년/복지기관이 14.7%(19명), 공공문화향유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14%(18명)순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험 유무 항목에서 종사하지 않는 청년예술인이 287명 (68.8%)으로 졸업 후 개인 창작활동에 우선한 작품 발표, 작품 참여 등을 통해 작가경력을 축적하는 시기와 연관됨

*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시설은 예술교육 수요자 대상에 따라 학교 예술강사 활동이 많음

<그림4> 거주자 유형



<표 13> 거주자 유형(가구)

항목	빈도	비율(%)
혼자(1인가구)	196	47.0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	82	19.7
부모와 생활(본인+부모)	122	29.3
동료와 생활(본인+동료)	11	2.6
기타	6	1.4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의 거주 유형을 조사한 결과, '혼자(1인가구)'인 경우가 196명 (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122명(29.3%), '독립된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82명(19.7%)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 중 약 50% 정도가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임

<표 14> 거주 유형(집)

항목	빈도	비율(%)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340	81.5
작업실에 부속된 방	42	10.1
일정한 거처 없음	17	4.1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13	3.1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5	1.2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의 거주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사는 청년예술인이 340명(81.5%)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은 대부분 가정집에서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음

▶빈도분석

* 청년예술인 거주자 유형 및 거주 유형에서 1인 가구 비중(47%),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거주(81.5%)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지역 내 공공 창작플랫폼 등 청년예술인 교류 및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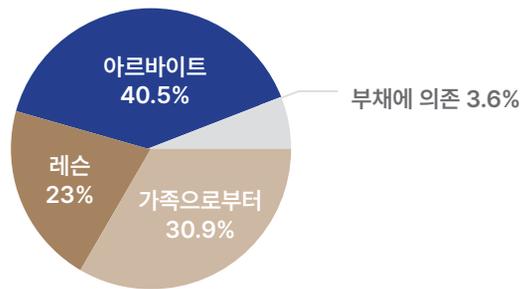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15> 수입에 대한 만족도

항목	예술창작 활동 측면		생계 및 생활 (경제) 측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불충분	67	16.1	99	23.7
불충분	145	34.8	167	40.0
보통	163	39.1	118	28.3
충분	37	8.9	29	7.0
매우충분	5	1.2	4	1.0
합계	417	100.0	417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예술창작 활동 측면에서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63명(39.1%)으로 가장 많음
- 또한 불충분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45명(34.8%)임
- 생계 및 생활 (경제) 측면에서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불충분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67명(40%)으로 가장 많음
-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18명(28.3%)임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의 수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에서 불충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표 16>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경로

항목	빈도	비율(%)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129	30.9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일을 통한 수입	96	23.0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해 수입	169	40.5
부채에 의존	15	3.6
기타	4	1.0
무응답	4	1.0
합 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의 총당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이 169명(40.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29명(30.9%)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은 대부분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한 비용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부채(빚) 여부

항목	빈도	비율(%)
부채가 없다	208	49.9
부채가 있다	209	50.1
합계	417	100.0

<표 17-1> 부채(빚) 원인

항목	빈도	비율(%)
가족의 부채	42	20.1
교육비(본인)	42	20.1
창업/사업비	22	10.5
주거비	55	26.3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32	15.3
차량 구입비	14	6.7
기타(육아/자녀교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	2	1.0
합계	209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부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채 여부에서는 '있다' 209명(50.1%), '없다' 208명(49.9%)으로 응답.
- 부채의 주 원인으로는 '주거비'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55명(26.3%)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교육비(본인)', '가족의 부채'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각각 42명(20.1%)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18>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

항목	빈도	비율(%)
경력 단절 경험 없다	164	39.3
경력 단절 경험 있다	253	60.7
합계	417	100.0

<표 18-1> 예술 경력단절 이유

항목	빈도	비율(%)
학업	61	24.1
출산/육아	30	11.9
건강문제	38	15.0
생계문제 해결 위해	121	47.8
기타(일이 없어서)	2	0.8
무응답	1	0.4
합 계	253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응답자 중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력 단절 경험 있다' 253명(60.7%) '경력 단절 경험 없다' 164명(39.3%) 순으로 응답
-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21명(47.8%), '학업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61명(24.1%)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예술활동인들에게 생계 문제(경제적 문제)를 지원 내지 해결하여 줄 수 있다면, 약 83%의 청년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임

▶빈도분석

* 청년예술인 수입만족도에서 예술창작 활동,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이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환경 및 문화향유 시장 등 문화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함

*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총당 경로에서 아르바이트 및 가족의 경제 지원 등 사적 총당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에서 청년예술인이 최소한의 독립적 예술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17-1>청년예술인의 부채 원인의 경우, 특이점으로는 주거비(26.3%) 및 생활비(15.3%)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청년예술인 지원의 경우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은 거주, 생활 안정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표 18-1>예술 경력단절 경험 이유 응답에서도 '생계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지역의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소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정서 · 건강

<표 19> 정서상태 빈도

문항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렇다		무응답	계
	(1일 미만)		(1~2일간)		(3~4일간)		(5일 이상)			
	빈도	비율 (%)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168	40.3	165	39.6	73	17.5	9	2.2	2	417
상당히 우울했다	176	42.2	153	36.7	70	16.8	15	3.6	3	41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32	31.7	159	38.1	98	23.5	24	5.8	4	417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38	33.1	158	37.9	95	22.8	23	5.5	3	417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92	46.0	131	31.4	67	16.1	24	5.8	3	417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220	52.8	117	28.1	59	14.1	20	4.8	1	417
마음이 슬펐다	176	42.2	142	34.1	81	19.4	16	3.8	2	417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34	56.1	105	25.2	58	13.9	17	4.1	3	417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6	37.4	150	36.0	83	19.9	26	6.2	2	417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역채점)	68	16.3	160	38.4	116	27.8	72	17.3	1	417
비교적 잘 지냈다(역채점)	102	24.5	201	48.2	71	17.0	39	9.4	4	417
총 계	1,762	38.4	1,641	35.8	871	19.0	285	6.2	28	4,587

- 설문조사에 응답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함
- 총 11 문항으로 최근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정도에 답하게 함
- 10, 11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즉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므로 역채점을 함
- 총계를 보면, 응답자 중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이 <극히 드물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8.4%이었고, <가끔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5.8%이었음
- 반면에 응답자 중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이 <종종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이고,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2%이었음
- 응답자 중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이 <종종 있었다>거나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5.2%임
- 추후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를 종종 경험하거나 대부분 경험하는 원인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 청년예술인의 정서상태는 창작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불안정한 창작 외적 환경으로 인해 소외, 고독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로 나타나 청년예술인의 지역 정착 및 예술인으로서의 지속가능한 활동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 * 청년예술인의 긍정적 정서 회복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이나 심리 정서 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용 확대 등과 같은 공공 문화서비스 정책의 시행 필요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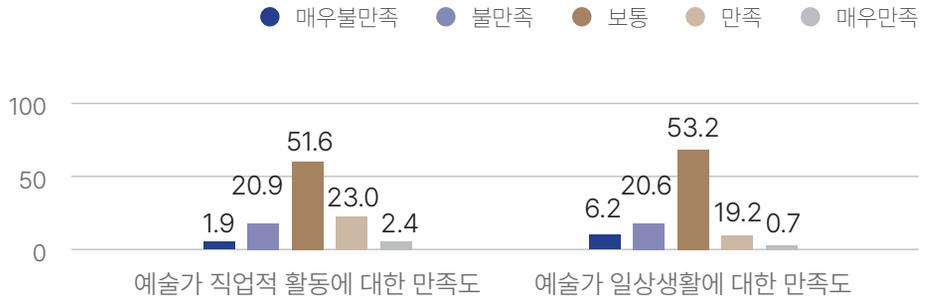
<표 20>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빈도	비율(%)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55	6.5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121	14.4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186	22.1
감정노동 스트레스	118	14.0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	125	14.8
업무상 재해 위험	29	3.4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55	6.5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29	3.4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71	8.4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50	5.9
기타 (불안정한 수익, 과한 노동량, 불공정한 수수료 배분, 불법사이트, 작품판매의 압박)	4	0.5
합계	843	10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6건(22.1%)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이 125건(14.8%),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이 121건(14.4%),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118건(1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은 다소 보수, 복지수준 등이 낮은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표 21>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항목	예술가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예술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불만족	8	1.9	26	6.2
불만족	87	20.9	86	20.6
보통	215	51.6	222	53.2
만족	96	23.0	80	19.2
매우만족	10	2.4	3	0.7
무응답	1	0.2	0	0.0
합계	417	100.0	417	100.0

-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예술가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215명(51.6%),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96명(23%),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87명(20.9%) 순으로 나타남
- 예술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222명(53.2%),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86명(20.6%), '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80명(19.2%)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빈도분석

*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기성 예술현장 직업군 진입과 함께 정착 과정에서의 업무 강도 체감, 예술인 고용 보수 지급에서의 낮은 소득 분포 인식 등으로 나타남

* 예술가 직업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예술활동 소득이 일상 생계 유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할 수 있음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22> 현재 건강상태

항목	빈도	비율(%)
매우 안좋다	5	1.2
안좋다	51	12.2
보통	158	37.9
양호하다	108	25.9
매우 양호하다	89	21.3
무응답	6	1.4
합계	417	100.0

-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58명(37.9%)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양호하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8명(25.9%), '매우 양호하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89명(21.3%)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매우 안 좋다'와 '안 좋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56명(13.4%)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총남 청년예술인은 대부분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최근 1년 건강 악화로 작업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항목	빈도	비율(%)
예	114	27.3
아니오	301	72.2
무응답	2	0.5
합계	417	100.0

-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301명(72.2%)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총남 청년예술인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응답분포로 확인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신체활동 지표, 건강상태가 좋을 의미를 의미

<표 24>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

항목	빈도	비율(%)
포기 한 적 없음	238	57.1
포기 한 적 있음	173	41.5
무응답	6	1.4
합계	417	100

·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 경험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포기한 적 없다' 238명(57.1%), '포기한 적 있다' 173명(41.5%)로 40%이사의 청년예술인이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24-1>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 이유

항목	빈도	비율(%)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54	31.2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51	29.5
시간이 없어서	43	24.9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9	5.2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12	6.9
거동이 불편해서	2	1.2
기타	2	1.2
합계	173	100.00

· 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 포기한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54명(31.2%),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51명(29.5%),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43명(24.9%) 순인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 응답분포로 확인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신체활동 지표,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

* 건강상태 빈도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비 부담(31.2%) 및 생계유지(29.5%) 등과 관련한 항목으로서, 예술활동에서의 건강이상 및 현장 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정책과 같은 청년예술인 복지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음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25> 예술인 신문고 인지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103	24.7
모른다	67	16.1
알고있다	106	25.4
잘 알고 있다	104	24.9
매우 잘 알고 있다	33	7.9
무응답	4	1.0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신문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6명(25.4%),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4명(24.9%),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3명(24.7%)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 신문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모르는 청년예술인은 170명(40.8%)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신문고에 대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6> 부당대우 경험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있다	124	29.7
	없다	233	55.9
	모름	57	13.7
	무응답	3	0.7
	계	417	100
상당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	있다	114	27.3
	없다	268	64.3
	모름	33	7.9
	무응답	2	0.5
	계	417	100
예술창작비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공제해서 받음	있다	79	18.9
	없다	245	58.8
	모름	91	21.8
	무응답	2	0.5
	계	417	100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있다	118	28.3
	없다	254	60.9
	모름	45	10.8
	무응답	0	0
	계	417	100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당함	있다	53	12.7
	없다	293	70.3
	모름	69	16.5
	무응답	2	0.5
	계	417	100
비인격적이며 모독적인 처우를 받음	있다	83	19.9
	없다	293	70.3
	모름	40	9.6
	무응답	1	0.2
	계	417	100
부당대우 전체 평균	있다	95	22.8
	없다	264	63.4
	모름	56	13.4
	무응답	2	0.4
	계	417	100.0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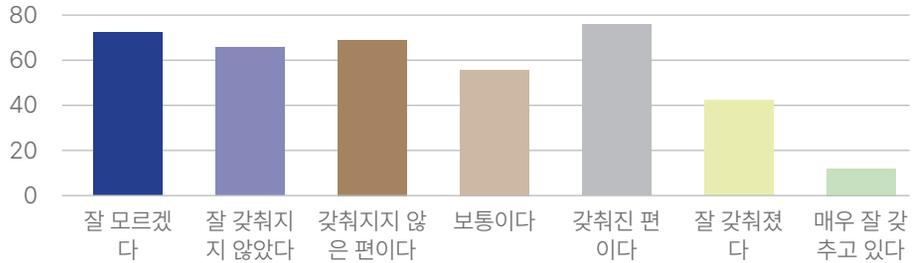
-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없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 중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24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18명(28.3%), '상당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14명(27.3%)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익과 관련한 부당대우 경험이 높은 편인 것으로 보임

<표 27>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항목	빈도	비율(%)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	173	41.5
일을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	149	35.7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았다	61	14.6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한다	14	3.4
기타(아직 경험이 없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중)	5	1.2
무응답	15	3.6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73명(4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일을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49명(35.7%)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은 14명(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에 대한 의견



<표 28>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	비율(%)
잘 모르겠다	77	18.5
잘 갖춰지지 않았다	67	16.1
갖춰지지 않은 편이다	75	18.0
보통이다	59	14.1
갖춰진 편이다	79	18.9
잘 갖춰졌다	41	9.8
매우 잘 갖추고 있다	17	4.1
무응답	2	0.5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 또는 부당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청년예술인이 196명(46.9%)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년예술인이 142명(34.1%)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이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 또는 부당행위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 청년·신진 예술인들이 예술현장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것은 대부분 고용불안의 위기의식 하에 비정규직·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적은 임금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을 의미
- * 문화예술분야 관련 유관 기관에서 인권침해, 불합리한 업무처리, 부당대우, 법률상담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예술가 부당 노동행위 모니터링 등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29>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56	13.4	172	41.2	120	28.8	59	14.1	9	2.2	1	417
성폭력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80	19.2	126	30.2	134	32.1	68	16.3	7	1.7	2	417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88	21.1	160	38.4	111	26.6	42	10.1	13	3.1	3	417
평균	74.7	17.9	152.7	36.6	121.7	29.2	56.3	13.5	9.7	2.3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82	19.7	109	26.1	135	32.4	72	17.3	16	3.8	3	417
여성차별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62	14.9	140	33.6	118	28.3	74	17.7	22	5.3	1	417
여성차별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61	14.6	135	32.4	146	35.0	63	15.1	12	2.9	0	417
여성차별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	79	18.9	133	31.9	116	27.8	73	17.5	15	3.6	1	417
평균	71.0	17.0	129.3	31.0	128.8	30.9	70.5	16.9	16.3	3.9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술계 성폭력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은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 152.7건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는 121.7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74.7건, '그렇다'는 56.3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계 여성차별 수준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129.3건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는 128.8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71건, '그렇다'는 70.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반적으로 성폭력과 여성차별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표 30>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항목	빈도	비율(%)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121	29.0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79	18.9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168	40.3
충남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48	11.5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0

-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68명(40.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21명(29%),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79명(18.9%), '충남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48명(11.5%)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103	24.7
모른다	67	16.1
알고있다	106	25.4
잘 알고 있다	104	24.9
매우 잘 알고 있다	33	7.9
무응답	4	1.0
합계	417	10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6명(25.4%),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4명(24.9%),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33명(7.9%)로, 총 243명(58.2%)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3명(24.7%),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67명(16.1%)으로, 총 170명(40.8%)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 예술계 성폭력 및 여성 차별에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역예술인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추후 응답자 성별을 반영한 세부 지표로서 성폭력 및 여성차별에 대한 응답 분포 분석이 필요함)
- * 성별에 따른 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으며, 창작지원 체계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분포도를 통해 나타난 성차별 인식에 대한 반응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 예술현장에서의 벌어지는 성폭력, 성차별 등 문제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폭력피해신고'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표 3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예	113	27.1
아니오	304	72.9
합계	417	100.0

<표 32-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	비율
등록하고싶지 않아서	64	21.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100	32.9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49	16.1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72	23.7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17	5.6
기타(심사반려와 재신청의 연속, 업무가 원활하지 못함)	1	0.3
무응답	1	0.3
합계	304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에서는 신청을 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신청하였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13명(27.1%)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신청하지 않은 청년예술인은 304명(72.9%)인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충남 청년예술인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00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등록하고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64명(21.1%),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49명(16.1%)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에서 신청 응답자 분포가 낮은 것은 청년예술인의 활동경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활동증명으로 인한 지원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33>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

항목	세목	빈도	비율(%)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지원받음	78	18.7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78	18.7
	신청 안함	261	62.6
	계	417	100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지원받음	46	11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72	17.3
	신청 안함	299	71.7
	계	417	100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지원받음	41	9.8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55	13.2
	신청 안함	321	77
	계	417	100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지원받음	33	7.9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64	15.3
	신청 안함	320	76.7
	계	417	100
공공의 문화사업 (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지원받음	51	12.2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63	15.1
	신청 안함	303	72.7
	계	417	100
민간의 문화사업 (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지원받음	48	11.5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64	15.3
	신청 안함	305	73.1
	계	417	100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지원받음	41	9.8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46	11
	신청 안함	330	79.1
	계	417	10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지원받음	39	9.4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52	12.5
	신청 안함	326	78.2
	계	417	100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지원받음	96	23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44	10.6
	신청 안함	277	66.4
	계	417	100
평균	지원받음	53	12.6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60	14.3
	신청 안함	305	73.1
	계	417	100.0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신청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많음
- 창작공간지원사업 참여율이 낮고, 창작비용지원사업과 예술인패스 발급 신청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 신청하여 지원받은 항목 중에서는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이 96명(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이 78명(18.7%) 순으로 많음
-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은 33명(7.9%)으로 가장 적음
-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항목으로는 공공의 창작비용지원이 78명(18.7%)으로 가장 많고,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이 72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음
-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지원이 가장 적음
- 청년예술인 중 복지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년예술인은 12.6%,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14.3%, 신청 안함 73.1% 로 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받지 못한 청년예술인이 87.4%됨

<표 34> 지원사업 참여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지원사업에 참여	60	14.4
지원사업에 미참여	357	85.6
합계	417	100.0

<표 34-1>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항목	빈도	비율(%)
지원제도를 몰라서	149	41.7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60	16.8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51	14.3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49	13.7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48	13.4
합계	357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원제도를 몰라서'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49명(41.7%)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60명(16.8%),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가 51명(14.3%),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가 49명(13.7%),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48명(13.4%) 순으로 비중이 비슷함

▶빈도분석

*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여부 응답도에서 지원 및 수혜 비중이 낮은 것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가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 청년예술인의 공공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자격에 대한 평가 미달, 지원 제약 요소로 나타남

*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지원혜택에서 지역 청년예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 지역청년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지원사업의 정보 교류를 위해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성화 등과 같은 섬세한 예술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35> 충청남도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계	비율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22	5.3	125	30	197	47.2	59	14.1	14	3.4	417	100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35	8.4	124	29.7	190	45.6	56	13.4	12	2.9	417	100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32	7.7	139	33.3	172	41.2	60	14.4	14	3.4	417	100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6	15.8	116	27.8	147	35.3	70	16.8	18	4.3	417	100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47	11.3	114	27.3	161	38.6	77	18.5	18	4.3	417	100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40	9.6	137	32.9	176	42.2	55	13.2	9	2.2	417	100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46	11	133	31.9	160	38.4	64	15.3	14	3.4	417	100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46	11	143	34.3	161	38.6	52	12.5	15	3.6	417	100
평균	41.8	10.0	128.9	30.9	170.5	40.9	61.6	14.8	14.3	3.4	417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음
- 반면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긍정적 답변에서는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77명),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70명)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부정적 답변으로는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143명),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139명) 순의 분포를 보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36>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중점 사업

항목	빈도	비율(%)	순위
생활안정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보육지원 등)	259	22.1	1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 지원 등)	231	19.7	2
예술환경 개선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217	18.5	4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등)	154	13.2	5
예술창작 지원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229	19.6	3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80	6.8	6
합계	1170	10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중점으로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 건(22.1%)으로 가장 많음
- 그 외에도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비율로 필요하다고 평가함
- 반면에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0건(6.8%)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충청남도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 정책

항목	빈도	비율(%)
예술가(단체) 지원 법률과 제도의 정비	130	10.6
예술진흥 관련 정부기관의 기능확대	134	10.9
예술가(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	196	15.9
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	112	9.1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108	8.8
작품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136	11.0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114	9.3
국민예술교육 확대 및 교육제도 개선	80	6.5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64	5.2
다른 국가와의 교류 및 홍보 확대	36	2.9
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94	7.6
예술활동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26	2.1
기타(작업실 공간대여 정책)	1	0.1
합계	1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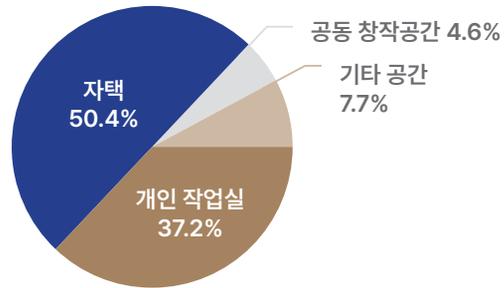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예술가(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196 건), '작품활동 공간시설의 확충'(136 건), '예술진흥 관련 정부기관의 기능확대'(134 건), '예술가(단체) 지원 법률과 제도의 정비'(130 건)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빈도분석

- * 충남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 대한 만족 응답자 비율이 낮은 것은 청년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예술현장 지원 및 정책이 부족했다는 반증임
- * 특히 청년예술인의 불안한 예술활동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예술활동의 장기 지속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 지원예술기관은 예술인 창작권, 주거권, 경제권, 건강권 등이 보장되는 중장기 정책마련과 함께 청년예술인의 독립, 생존을 위한 종합적 육성계획 수립이 요청됨
- * 세부적으로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를 위한 '예술인활동증명'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지원, 예술창작 활동 장려를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과 같은 공공 예술인복지 사업 시행이 필요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그림 8> 주 창작활동 장소



<표 38> 주 창작활동 장소

항목	빈도	비율(%)
자택	210	50.4
개인 작업실	155	37.2
기타공간(지인 작업실, 카페, 도서관, 학교 등)	32	7.7
공동 창작공간	19	4.6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주 창작활동 장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택'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210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작업실'이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55명(37.2%)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공공 또는 공동 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예술인은 51명(12.3%)인 것으로 나타남

공동 창작공간

같은 공동창작공간 사용, 공주대학교, 극단 울림, 문화카페, 빈 사무공간, 서천 청년공간 설레유, 선배 연습실, 아르코,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연습실, 예술인 지원 사업 공동 창작 공간, 일반 사무실, 지원 사업 예술인 공동 창작 공간 활용, 학교 무용실, 학원홀 등의 응답이 나옴

기타 작업공간

개인 연습실, 극단 연습실, 대전 연습실, 대학교 무용관, 도서관, 동료 작업실, 동아리실, 당진 아미미술관, 이응노의집 레지던시, 선배 작업실, 연습실이나 카페, 졸업한 학교 연습실, 지역 내 극단 연습실 혹은 자택, 지역 카페나 청년센터 공유공간, 지인 학원, 지인 운영하는 작업실, 지인이 임대한 합창 연습실, 창고, 친구 작업실, 카페, 커피전문점, 학교 내 연습실, 대여공간, 학원 등의 응답이 나옴

<표 39> 창작공간의 필요성

항목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153	36.7
필요하다	154	36.9
보통	98	23.5
필요 없다	9	2.2
전혀 필요 없다	0	0
무응답	3	0.7
합계	417	1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창작공간의 필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54명(36.9%),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53명(36.7%)으로 창작공간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0> 공동 창작공간 이용 의향

항목	빈도	비율
이용 의향이 매우 높다	147	35.3
이용 의향이 있다	120	28.8
보통이다	88	21.1
이용 의향이 없다	52	12.5
이용 의향이 전혀 없다	7	1.7
무응답	3	0.7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공동 창작공간 마련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용 의향이 매우 높다' 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47명(35.3%)로 가장 많고,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20명(28.8%)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공동 창작공간을 마련할 경우 이용할 의향을 가진 청년예술인이 많은 것으로 보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41> 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창작/연습/집필공간)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	비율(%)
매우 부족하다	73	17.5
부족하다	71	17.0
보통이다	121	29.0
풍족하다	117	28.1
매우 풍족하다	32	7.7
무응답	3	0.7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이 충분한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121명(29%), 풍족하다 117명(28.1%)로 응답해 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표 42> 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	비율(%)
매우 부족하다	46	11.0
부족하다	103	24.7
보통이다	126	30.2
풍족하다	118	28.3
매우 풍족하다	20	4.8
무응답	4	1.0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이 충분한지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은 103명(24.7%)이고,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년 예술인이 46명(11%)인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118명(28.3%),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20명(4.8%)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남 청년예술인은 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청년예술인과 부족하다고 여기는 청년예술인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임

▶빈도분석

- *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에 대한 응답자 반응 분포에서 나타는 특이점은 공공보다 개인 및 사설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임
- * 이는 공공의 거점 창작공간, 발표공간 및 예술활동 교류를 위한 지역문화플랫폼, 레지던시 공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내 창작 및 발표, 교류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표 43> 예술활동 방식

항목	빈도	비율(%)
개인 단독활동	278	54.1
예술인 단체, 협회 소속 활동	110	21.4
다른 예술인과 팀 형태 협업활동	103	20.0
회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등)에 소속활동	23	4.5
합계	514	10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예술활동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 단독활동이 278 건(5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고 공동 또는 협업 형태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이 113명 (41.4%)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 온/오프라인 활동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온라인으로 활동	141	33.8
오프라인으로 활동	111	26.6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동	114	27.3
오프라인 활동 하고 있지만 온라인활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49	11.8
무응답	2	0.5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주 예술활동지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이 141명(33.8)로 가장 많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이 114명(27.3%),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이 111명(26.6%)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청년예술인은 304명(72.9%)으로 많은 수의 청년예술인들이 온라인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44-1> 온라인 활동지

항목	빈도	비율(%)
SNS(블로그, 인스타, 밴드 외)	201	54.8
유튜브	91	24.8
숨고, 아이디어스	33	9.0
온라인 교육 사이트(클래스101, 소모임, 숨씨당, 프리프 외)	17	4.6
전자책자 발행	10	2.7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5	1.4
웹툰플랫폼	4	1.1
메타버스 (제페토, 이프랜드 외)	4	1.1
기타(온라인 문학플랫폼, 온라인미팅)	2	0.5
합계	367	1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표 44> 온라인 활동여부의 온라인으로 활동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255명이 온라인 활동지역을 모두 선택
- 온라인 활동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SNS(블로그, 인스타, 밴드 외)가 255명 중 78.1%(200명)로 압도적으로 높고, 유튜브 35.5%(91명), 숨고·아이디어스 12.9%(33명)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메타버스 1.6%(4명)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온라인 활동지에 대해 응답한 청년예술인 255명 중, 113명이 복수선택

<표 45>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예	295	70.7
아니오	121	29.0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인 295명(70.7%)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1>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

항목	빈도	비율(%)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교육	87	29.5
1인 콘텐츠 (유튜브, 교육 콘텐츠 만들기)	81	27.5
온라인 기초 교육	43	14.6
SNS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활성화 교육	39	13.2
숨고, 아이디어스 잘 하는 법	16	5.4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13	4.4
메타버스 아이템, 빌드잇 발행	7	2.4
전자책자 발행	6	2.0
기타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 작품으로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의 개념교육, 영상편집기술)	3	1.0
합계	295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예술인 295명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87명(29.5%), '1인 콘텐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이 81명(27.5%) 가 비중이 비슷하게 높음
- 또한 '온라인 기초 교육' 43명(14.6%), SNS 활성화 교육 39명(13.2%) 순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빈도분석

- * 예술활동 방식에 있어서 개인단독 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 청년 예술인 활동분야가 개인 창작활동이 주를 이루는 문학과 시각 분야 예술인 비중이 높기 때문임 (*복수 응답 가능에 따른 요소 분석)
- * 온/오프라인 예술활동지 응답에서 온라인 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세대 유형이 오프라인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과는 차별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예술창작 및 교육 활동에 친숙하고,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하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강화된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온라인 예술활동 교육의 필요 항목에서도 1인 미디어 및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과 같은 교육선호도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기대 활용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따라서 온라인 예술활동 교육, 청년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개인 관련 사항

<표 46> 성별

항목	빈도	비율(%)
여성	253	60.7
남성	163	39.1
무응답	1	0.2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253명(60.7%)이고, 남성은 163명(39.1%)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 연령

항목	빈도	비율(%)
20대 미만	2	0.5
20대	177	42.4
30대	238	57.1
합계	417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연령을 조사한 결과, 20대 미만이 2명(0.5%), 20대가 177명(42.4%), 30대가 238명(57.1%)인 것으로 나타남

<표 48> 현재 거주지역

항목	시															충청남도 이외 지역	합계
	천안	공주	당진	아산	계룡	서산	보령	논산	홍성	부여	금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빈도	117	72	42	41	24	22	19	16	10	9	8	6	4	2	2	24	417
비율	28.1	17.3	10.1	9.8	5.8	5.3	4.6	3.8	2.4	2.2	1.9	1.4	1.0	0.5	0.5	5.8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이 115명(27.6%)로 가장 많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이 73명(17.5%), 당진시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이 42명(10.1%)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49> 졸업학교의 전공분야(예술분야장르)

항목	세목	빈도	비율(%)
중학교	일반	388	93.05
	타 예술분야 전공	21	5.04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8	1.92
	계	417	100.00
고등학교	일반	334	80.10
	타 예술분야 전공	22	5.28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61	14.63
	계	417	100.00
초대졸	일반	87	45.8
	타 예술분야 전공	20	10.5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83	43.7
	계	190	100.0
대졸	일반	69	22.1
	타 예술분야 전공	41	13.1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202	64.7
	계	312	100.0
석사졸	일반	13	19.1
	타 예술분야 전공	16	23.5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39	57.4
	계	68	100.0
박사수료이상	일반	10	35.7
	타 예술분야 전공	7	25.0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	11	39.3
	계	28	100.0

- 충남 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수료의 전공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주 예술분야 전공은 대졸(202명), 초대졸(83명), 고졸(61명) 순으로 많음. 대학교부터는 본인의 주 예술분야전공이 초대졸이 43.7% 대졸의 경우 64.7% 로 많은 예술인들은 본인의 전공으로 본업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냄.
- 특이점으로는 초대졸을 졸업후에 대학교 편입 졸업한 예술인은 190명중 116명으로 많은 수의 초대졸 예술인이 대학을 편입한 것으로 나타남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거주지역·
활동예술분야
교차표

<표 50> 거주지역별 활동예술분야

	활동예술분야														
	건축	공예	국악 분야	대중 음악	디자인	만화 (웹툰 포함)	무용	문학 (출판)	미술	방송 연예 (대중 음악 제외)	사진	연극 (뮤지컬, 오페라 포함)	영화 (애니메이션 포함)	음악 (양악, 클래식)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계룡시	1	0	1	0	4	1	0	4	4	0	4	0	0	2	21
공주시	1	6	0	0	15	5	7	8	10	3	7	4	4	2	72
금산군	0	0	0	1	2	0	0	3	0	0	2	1	1	1	11
논산시	1	2	0	1	4	0	0	0	6	0	7	1	2	1	25
당진시	1	6	0	0	8	1	1	9	2	2	5	2	2	2	41
보령시	3	5	1	1	2	4	0	0	5	0	2	1	0	2	26
부여군	1	0	0	0	0	1	2	3	2	0	0	1	0	0	10
서산시	0	2	0	0	4	2	0	4	3	0	5	2	1	2	25
서천군	0	0	0	0	1	1	0	0	2	0	2	0	1	0	7
아산시	0	4	2	5	1	7	0	5	11	1	4	2	2	5	49
예산군	0	1	0	0	0	0	0	1	1	0	0	0	1	0	4
천안시	2	8	3	7	20	13	2	18	22	4	14	12	8	11	144
청양군	0	2	1	0	0	0	0	1	0	0	0	0	0	0	4
태안군	0	0	0	0	0	0	0	1	0	0	1	0	0	0	2
홍성군	0	1	0	0	3	1	1	1	3	0	1	0	0	2	13
충청남도 이외 지역	0	0	0	0	3	4	7	0	3	0	2	1	0	4	24
전체	10	37	8	15	67	40	20	58	74	10	56	27	22	34	478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거주지역·
중분류 교차표**

중분류 교차표

문학 : 문학(출판)

시각예술 : 사진, 공예, 디자인, 미술

공연예술 : 음악(양악, 클래식), 국악분야, 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무용, 대중음악, 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대중음악

영화 만화 : 방송연예,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만화(웹툰 포함)

* 건축분야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10명)

* 충청남도 이외지역 제외함(24명)

<표 51> 거주지역 * 중분류 교차표

	공연 예술	문학	시각 예술	영화 만화	전체	설문자 비율(%)	도시 인구 (만명)	도시인구 비율(%)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계룡시	3	4	12	1	20	4.5	4.4	2.1	
공주시	13	8	38	12	71	16.0	10.3	4.9	
금산군	3	3	4	1	11	2.5	5	2.4	
논산시	3	0	19	2	24	5.4	11.4	5.4	
당진시	5	9	21	5	40	9.0	16.7	7.9	
보령시	5	0	14	4	23	5.2	9.8	4.6	
거주지역	부여군	3	3	2	1	9	2.0	6.3	3.0
	서산시	4	4	14	3	25	5.6	17.6	8.3
	서천군	0	0	5	2	7	1.6	5	2.4
	아산시	14	5	20	10	49	11.0	33	15.6
	예산군	0	1	2	1	4	0.9	7.7	3.6
	천안시	35	18	64	25	142	32.0	65.7	31.0
	청양군	1	1	2	0	4	0.9	3.1	1.5
	태안군	0	1	1	0	2	0.5	6.1	2.9
	홍성군	3	1	8	1	13	2.9	9.9	4.7
	전체	92	58	226	68	444	100.0	212	1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빈도분석

* 거주지역 중분류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남 시, 군별 시각예술분야 빈도가 높고, 공연예술 및 문학 전문가 예술인 비중 역시 높은 편임

* 상대적으로 영화·만화 분야 활동 예술인이 적은 것은 지역 대학 출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산업 기반 인프라가 취약함을 나타내줌

* 시각 및 문학 예술분야의 경우, 개인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지에 대한 선택이 용이하고, 이에 따른 예술지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청년예술인의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제안과제 외 예비청년 예술인 특이점

교육과 향후 진로

<표 52>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항목	빈도	비율(%)
필요성 느낌	48	94.1
필요성을 못 느낌	3	5.9
합계	51	100

<표 52-1>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의 목적

항목	빈도	비율(%)
진로에 도움	22	45.8
역량강화에 도움	14	29.2
기본적인 소양강화에 도움	6	12.5
예술경영·마케팅으로 예술활동에 도움	6	12.5
합계	48	100

48명(94.1%)의 학생들이 실용교과목 수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수강의 목적으로는 향후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43.1%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29.4%, 기본적인 소양강화에 도움 13.7%, 예술경영 마케팅으로 예술활동에 도움 13.7%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빈도분석

예비청년예술인의 예술관련 실용과목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분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교육기관이 여전히 이론중심교과 커리큘럼이 짜여있고, 실제 현장에서 요청되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용교과 커리큘럼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청년예술인의 실용교과목 수강 목적에서도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표 53> 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필요 교과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예술경영 이론/개론	2	3.9	2	3.9	16	31.4	19	37.3	12	23.5	51	100
공연, 전시 기획/제작	2	3.9	0	0.0	8	15.7	18	35.3	23	45.1	51	100
축제기획	1	2.0	3	5.9	13	25.5	21	41.2	13	25.5	51	100
조직 운영 및 관리	1	2.0	0	0.0	10	19.6	23	45.1	17	33.3	51	100
마케팅/홍보	0	0.0	1	2.0	4	7.8	25	49.0	21	41.2	51	100
문화정책	1	2.0	2	3.9	12	23.5	23	45.1	13	25.5	51	100
예술공간경영	2	3.9	2	3.9	13	25.5	26	51.0	8	15.7	51	100
재무, 회계	2	3.9	5	9.8	19	37.3	17	33.3	8	15.7	51	100
실무 문서 작성	0	0.0	3	5.9	16	31.4	15	29.4	17	33.3	51	100
인턴십(기획, 제작)	1	2.0	1	2.0	6	11.8	6	11.8	37	72.5	51	100
디지털 마케팅(SNS, 커뮤니티, 메타버스, NFT, 외)	1	2.0	2	3.9	2	3.9	13	25.5	33	64.7	51	100
평균	1.18	2.32	1.91	3.74	10.8	21.2	18.7	36.7	18.4	36	51	100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매우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과목은 인턴십(기획, 제작) 37명(72.5%), 디지털 마케팅(sns, 커뮤니티형성, 메타버스, NFT 등)이 33명(64.7%), 공연, 전시 기획/제작 23명(45.1%) 순으로 응답. 예비청년예술인이 가장 필요한 취업관련 교육은 인턴십(기획,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으로 나타남

예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53-1> 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필요 교과목('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항목	빈도	비율(%)
마케팅/홍보	46	90.2
디지털 마케팅(SNS, 커뮤니티, 메타버스, NFT, 외)	46	90.2
인턴십(기획, 제작)	43	84.3
공연, 전시 기획/제작	41	80.4
조직 운영 및 관리	40	78.4
문화정책	36	70.6
축제기획	34	66.7
예술공간경영	34	66.7
실무 문서 작성	32	62.7
예술경영 이론/개론	31	60.8
재무, 회계	25	49.0

<표 53>향후 진로 및 취업관련 필요 교과목에서 각 과목별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청년예술 수는 모든 과목이 60%~90%로 실무에 대한 수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4>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항목	빈도	비율
예	46	90.2
아니오	5	9.8
계	51	100.0

- 충남 예비청년예술인 조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예비청년예술인인 46명(90.2%)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예술인은 70.7%, 예비청년 예술인은 90.2%로 청년예술인보다도 예비청년예술인이 교육이 필요하다 응답

▶빈도분석

예비청년예술인의 진로 및 취업 관련 필요 교과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특히 해당 응답률 표본 비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턴십(기획, 제작) 37명(72.5%)'이나 '디지털 마케팅', '공연, 전시기획/제작' 등과 현장 실무적 실용교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표53>, <표54>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도 주목할 부분이다.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교과목은 변화되는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것으로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콘솔) 게임, 등이 대표적인 인터넷 기반장치의 예일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장치와 기기들이 인터넷 검색기능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의 잠재성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져 보인다. 예술시장에서의 예술가의 창작품, 콘텐츠 등도 바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그 토대에서의 마케팅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정책, 예술공간경영,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예비청년예술인의 필요 인식이 낮은 것은 그만큼 활동 기반이 영세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 55> 예술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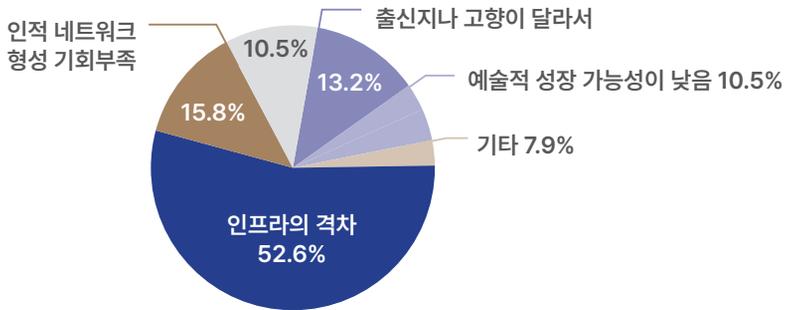
항목	빈도	비율
충청남도지역에서 지속	5	9.8
충청남도 이외에서 지속	38	74.5
지속의사 없음	1	2.0
잘 모름	7	13.7
합계	51	100

74.5%(38명)의 학생들이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3.7%(7명), 충청남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9.8%(5명) 응답

▶빈도분석

예비청년예술인의 졸업 후 전공관련 활동을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분포도가 74.5%(38명)라는 것은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6> 졸업 후, 충남 외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이유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의 예술창작인프라,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부재 등은 충남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예비청년예술인', 신진예술인 세대의 지역 정착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적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9> 졸업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지역에서 활동 하려는 이유



<표 56> 졸업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지역에서 활동 하려는 이유

항목	빈도	비율
예술창작 인프라의 격차	20	52.6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부족	6	15.8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음	4	10.5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서	5	13.2
기타	3	7.9
합계	38	100.0

충남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예술창작 인프라의 격차가 커보여서 52.6%(20명) 이고, 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해 보여서 15.8%(6명),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서(13.2%),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보여서(10.5%)순의 비율을 보였으며, 충남을 떠나려는 학생들의 83.3%(20명)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응답

생활 · 가치관

<표 57> 부채 유무

항목	빈도	비율
부채없음	29	56.9
부채있음	22	43.1
합계	51	100.0

<표 57-1> 부채의 원인

항목	빈도	비율
학자금	11	39.3
가족의 부채	12	42.9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4	14.3
주거비	1	3.6
예비창업/사업비	0	0.0
의료비	0	0.0
차량구입비	0	0.0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	0	0.0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0	0.0
합계	28	10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예비청년예술인 중 29명(56.9%)가 부채가 없다고 응답
-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22명 중 부채원인으로는 가족의 부채 12명(42.9%), 학자금 11명(39.3%), 생활비 4명, 주거비 1명 순으로 가족의 부채와 학자금 부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8> 소비생활 중 가장 큰 부담

항목	빈도	비율
식료품비/외식비	32	27.6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22	19.0
문화여가비	15	12.9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	10	8.6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9	7.8
교통비/차량유지비	8	6.9
의류비/미용비	5	4.3
교육비/취업준비비	5	4.3
연료비(전기, 가스 등)	4	3.4
통신비	3	2.6
보건의료비	1	0.9
경조사비	1	0.9
부채상환비	1	0.9
합계	116	10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 소비생활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식료품비/외식비 32명(27.6%)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22명(19%), 문화여가비 15명(12.9%) 순으로 응답
- 특히 사항으로는 자기계발과 예술활동이 부담이라고 응답한 예비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 10명(8.6%), 자기계발비(학원비) 9명(7.8%)으로 나타남

▶ 빈도분석

예비청년예술인의 부채비율에서 부채가 없다는 29명(56.9%) 응답비율보다, 부채가 있다는 22명(43.1%)의 비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예비청년예술인의 절반이 부채가 있으며, 특히 예술분야 전문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 수반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예비청년예술인의 부채 인식에서 출발하여 향후 지속적 예술 활동의 제약과 안정적 성장과정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57-1>, <표 58>에서처럼 부채원인이나, 소비생활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에서처럼 학자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부채는 앞으로 예술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8.6%), 자기계발비(학원비)(7.8%) 등과 같이 자기계발과 예술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인 학자금, 생활, 주거비 등의 부담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비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비',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59>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예비예술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성폭력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5	9.8	9	17.6	23	45.1	13	25.5	1	2	51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5	9.8	9	17.6	21	41.2	14	27.5	2	3.9	51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	6	11.8	13	25.5	22	43.1	10	19.6	0	0	51
평균	5.3	10.5	10.3	20.2	22.0	43.1	12.3	24.2	1.0	2.0		
여성차별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	8	15.7	9	17.6	16	31.4	9	17.6	9	17.6	51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	9	17.6	6	11.8	14	27.5	11	21.6	11	21.6	51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	10	19.6	10	19.6	16	31.4	8	15.7	7	13.7	51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	11	21.6	7	13.7	12	23.5	11	21.6	10	19.6	51
평균	9.5	18.6	8.0	15.7	14.5	28.5	9.8	19.1	9.3	18.1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예비청년예술인이 성폭력에 대해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25.5% 로 청년예술인 15.8%에 비해 높고,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예비청년예술인이 그렇다,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은 37.9%로, 청년예술인 20.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느끼고 있음

▶빈도분석

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예비예술인)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비예술인의 성폭력 및 성차별 인식이 높고, 이는 이들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예비예술인의 예술활동 환경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성폭력, 성차별 없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성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인식 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생참여단' 구성 운영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교육', '예술인성폭력피해신고상담센터' 등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지원 및 상담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 지원, 성차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 단체,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표 60>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

항목	빈도	비율(%)
재산·경제력	33	31.4
건강	21	20.0
화목한 가정	13	12.4
자아실현	10	9.5
긍정적 태도	9	8.6
꿈·목표 의식	7	6.7
친구·대인관계	5	4.8
기타(종교, 직업, 연인, 사회분위기)	7	6.7
합계	105	1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예비청년예술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은 '재산·경제력'이 31.4%고 응답, 그 다음으로 건강 20%, 화목한 가정 12.4%, 자아실현 9.5% 순으로 재산·경제력과 건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느끼고 있음

▶빈도분석

예비청년예술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재산·경제력'을 꼽은 것은 세대들의 가치관은 삶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

	빈도	비율(%)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28	26.17
인터넷	19	17.76
TV시청	8	7.48
친구만남	8	7.48
게임	7	6.54
음주	7	6.54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않음)	7	6.54
관광 및 여행	5	4.67
쇼핑	4	3.74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4	3.74
스포츠관람(야구, 배구, 경기관람)	3	2.80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3	2.80
산책 및 걷기	3	2.80
기타(그림·글)	1	0.93
합계	107	1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예비 청년예술인 설문조사(빈도표)

<표 61-1>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빈도	비율(%)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30	27.52
관광 및 여행	30	27.52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18	16.51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11	10.09
쇼핑	8	7.34
스포츠관람(야구, 배구, 경기관람)	5	4.59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않음)	2	1.83
산책 및 걷기	1	0.92
친구만남	1	0.92
TV	1	0.92
인터넷	1	0.92
게임	0	0.00
음주	0	0.00
기타 (캠핑)	1	1.00
합계	109	100

* 중복 선택 가능 질문

평소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이 가장 26.7%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18.1%), TV 시청(7.6%), 친구만남(7.6%), 게임(6.7%), 음주(6.7%), 휴식(6.7%)순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관람 이외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응답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28.6%, 관광 및 여행 28.6%로 두가지가 가장 많이 응답, 문화예술참여17.1%, 문화예술참여 10.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게임과 음주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음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은 동일하게 높았지만, 이 두가지 조사에서의 특이점은 주로하는 여가활동에서 중·하위권이던 관광과 여행, 문화예술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가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 1, 3위를 차지했고, 상위권이던 음주, 게임, 인터넷, TV, 친구만남 등은 하고싶은 여가활동에서 응답자가 없었음

▶빈도분석

예비예술인의 여가활동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 등 복지 지원 등의 안정적 토대환경 속에 여가활동 마련은 예술활동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인지, 신체)를 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가통제에 대한 인식은 여가비용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여가 활동은 삶의 질적 향상, 자아실현, 행복추구,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으로 있기 때문에 첫째, 예비예술인을 위한 여가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여가·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기관 내 여가·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예술 활동을 넘어, 취미와 여가생활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있는 '플랫폼' 등이 속속 나타나는 것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취향이나 감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과 함께 관련된 클래스, 소모임 등의 활동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교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플랫폼, 스테이션 등과 같은 문화 기획들은 좋은 예술을 만드는 것에도 의도가 있지만, 청년예술가의 여가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3장 심층면담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1.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기획분야 기획자로서는 경력 단절이 굉장히 빈번하고 굉장히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느끼는 편이에요. 보통 문화기관에 위탁 사업자의 직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재단 내지는 군에서 만든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의 2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위탁 사업자에게서 일을 할 경우에는 소위 파리 목숨 같은 수준이거든요.



음악분야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헤쳐 나가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일과 가정(결혼)이 맞서게 되면 대개는 결혼을 많이 선택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들이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분야 제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격려 안 끊기려고 노력했다는 거랑 약간 이어지는데요. 저는 일단 석사까지는 했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석사 과정때는 어차피 전시 활동이랑 다 병행하잖아요. 학업이랑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죠. 재료비도 써야 되고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2. 예술활동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국악분야 예술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1년 365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술 활동인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몇이나 될까요. 예술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예술인들 모두의 바람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예술인들이 예술인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기획분야 너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예술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작가들 자신들이 투잡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조각하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여서 조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목공과 용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조각가들은 대부분 용접 일과 목공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산업 분야에 녹여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은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술계 대학을 마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재능을 활용하는 일의 임금은 낮아요. 나의 가치관을 녹여 예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웹툰분야 인컴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제일 이상적인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송곳 그래프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술계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원금을 통해서 예술인을 육성하려는 방향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생계유지는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제 반려자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죠. 어찌 보면 지금 청년들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상위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분야 생계유지는 쉽지 않은 현실이지요. 저는 규칙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다음 달 나의 생계 현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생계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술 작업이라는 건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임금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나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고정 수입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 갑니다. 예술 활동으로 생계유지를 하려면 건별로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미술분야 국가 정책으로 최저 시급이 정해져도 사설학원 업계는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15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예요.



음악분야 합창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월 100만 원 언더로 받는 학장들도 많고요. 건 바이 건으로 연주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연주할 때 개런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만 ~ 30만 원도 허다합니다.



미술 교육(예비예술인) 음악과 무용의 경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술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데, 몇날 몇일을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리고 작업해서 내놓은 작품을 사람들은 완성작만 보고 이걸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고, 예술만으로 생계유지는 힘들 것 같아 저는 처음부터 선생님을 하려고 미술교육과를 선택했어요.



무용(예비예술인) 예술만 해서는 생계를 유지 할수 없을 것 같고,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일자리를 구해야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술활동 외의 일자리를 위한 계획과 경험



기획분야 조각하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조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목공과 용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조각가들은 대부분 용접일과 목공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산업 분야에 녹여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은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미술분야 제가 그동안 경력 안 끊기려고 노력했다는 거랑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작업할 재료비도 있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직원으로 소속이 돼서 근무하고 야근까지 근 하게 되면 제 작업을 할 시간이 통 없어서 그나마 시간이 좀 나는 학원 강사로 제일 오래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생계유지를 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작업했어요. 가끔 전시 스케줄 잡힐 때면 겨우 양해 구해서 전시 설치를 진행하는 식으로 되게 뻘뻘하게 살았어요. 작품을 많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하면 작품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지요. 그 중간 밸런스를 항상 맞추기가 힘들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작업실 겸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술 교육(예비예술인) 미술이 좋아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교대 미술교육을 선택했어요. 우선 미술교육을 하고 나중에 큐레이터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면담분석 및 시사점

지역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에 대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취약한 지역문화예술 여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생계유지 가능한 예술활동은 지역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절박한 부분이다.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에서 인터뷰 사례처럼 '민간영역'에서의 예술활동은 제약이 많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술활동 일자리의 빈곤함은 재정적으로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고, 청년예술인복지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들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력단절, 대표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중장기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환경이 마련된다. 하지만, 현재의 문화예술 정책적 개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에서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예술생태계' 구성과 예술활동의 단절 중에서도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공유하고, 경력단절기의 활동 역시도 커리어로 인정하고 함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며, 경력단절 중에도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그룹에게 별도의 지원 사업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1.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기획자분야 솔직히 2015년도 정도까지는 부당 대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분야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은 없어요. 예술계에 부당대우는 많지만, 저는 그런곳과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국악분야 1시간 공연하려면 적어도 10명은 필요한데 150만원을 주면서도 많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하려면 연습도 여러 번 해야 하는데, 1시간 공연하는데 20만~ 3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8.8% 세금을 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비영리 단체도 이젠 세금을 뺍니다.

2. 예술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음악분야 예술계에서는 합창 공연 좀 해줘 이렇게 뽑아서 객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6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일 공연을 서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당일 수당 15만~ 20만 원 받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 페이를 이 정도 준다고 했을 때 협상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음알음으로 진행하는 연주에서는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구두로 얼마 줄게 이런 식이예요.



미술분야 우리 사회에 재능 기부가 만연되어 있지만, 전 개런티가 없으면 안 했어요. 적은 금액으로도 진행했으니 열정 페이는 맞지만, 무료 봉사는 안 했습니다.

3. 예술계 내부 인맥 중심 관행 경험 여부와 관련 문제 인식



음악분야 선·후배 교수 이런 분들이 연주 기회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초반 예술 활동 시작할 때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인맥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컸는데, 재단의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기획분야 재능 기부나 열정 페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술협회라든지 예총 등 향토 예술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지역 예술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나 행사에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익을 위한 기여 등등의 명분으로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죠.



음악분야 열정 페이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부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기부 받는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능 기부는 일단 예술인들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기부를 하는 게 맞고, 자의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조금 강요하는 분위기로 진행될 때도 있어요.

4. 교내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예비예술인)



미술 교육(예비예술인) 선생님이 포트폴리오를 잘 써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선생님에게 잘보이기 위해 돈을 썼다는 소문도 많았어요. 예술계가 실기 등급을 선생님이 책정하니, 1등급 받은 애 보다 2등급 받은 애가 잘 그렸는데, 1등급 받는 애들 중에는 보통 학부모가 운영하는 동아리 학생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당시 생각해보면 저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힘도 없으니 이의제기도 안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홍대와 서울대 실적에만 집착이 심해서 공주교대를 간다하니 신경도 안써줬어요.

면담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계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구조 안에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용직 고용의 형태, 각종 기금, 지원금 수령, 수상, 심사 등이 사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기 쉽기 때문에 예술교육 현장인 학교/학원과 관계된 전문종사자가 직업인으로서 창작현장까지 고스란히 연계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창작현장까지 이어진 위계구조는 전문예술인으로 진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예술인, 신진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이는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의 위계폭력, 스승·선배, 심사위원이나 비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 등으로 나타난다.

지역문화예술정책은 지역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현장에서의 불평등한 상황을 경감시키고, 창작 및 예술활동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딪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장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극복하고, '동등한 존중의 원칙'을 강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예술가 개개가 존엄하게 대우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위계적인 예술현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는 전폭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일하는 현장에 차별당사자로서의 청년, 여성 등이 '문제제기'와 '교정'에 적극적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교정에 대한 인식을 거부할 수 없게 예술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1. 청년예술인의 정의



국악분야 충남 안에도 아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서산도 있고 여러 군데로 지역이 나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만 34세까지 될 때도 있고, 충남은 만 39세까지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청년 예술인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충남도 되고 각 지역도 되고 그렇습니다. 30대 후반 사람들은 청년인지 청년이 아닌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충남 안에 모든 지역이 연령대를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획분야 충청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연령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39세로 많이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상향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향했을 때 좋은 점은 20대, 30대, 40대가 어울려서 프로젝트를 벌이게 된다면 40대, 50대, 60대가 묶여 있는 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분야 청년 예술인은 이제 예술인으로서 처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라서 미숙하고 또 기회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한테는 아무래도 기성 작가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분야 39세 미만이면 전업 예술인으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 사업



기획분야 도시에서는 작업실을 공공의 영역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은 비교적 작업실에 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역작가들이 레지던시 사업 등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50평~ 100평 정도가 되는 작업실을 갖고 있는데, 굳이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는 열망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미술분야 판화는 기계나 장비들이 필수입니다. 그냥 페인팅 하는 사람들처럼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못해요. 기계가 작지도 않고 다 무겁고 크다 보니까 일단 넓은 작업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던시에 참여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음악분야 학교 연습실을 이용하는 편이라서 다른 예술인에 비해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창단에 소속이 안 돼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연습할 스튜디오를 빌려야 하니 부담이 되겠지요. 현재 공주문화재단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1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 충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국악분야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보조 사업이 필요합니다. . 충남의 예술인들이 연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적 연대의 프로그램들(지역별로 아산이면 아산과 충남문화재단 천안과 충남문화재단)로 지속적인 공연 기획을 만들어 동반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기획분야 2010년 무렵부터 계속 재단 사업들을 해왔는데, 근래 한 3년 이내에 재단의 운영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서류의 포맷 같은 게 굉장히 세련됐었고, 행정에 대한 이해나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작가 섭외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안내, 지역 시설의 사용 등 굉장히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단은 사업이 실제로 좀더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국악분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쪼개서 200~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분야 예산 관련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한 예산 대비 거의 절반이 감액되어 선정이 됐어요. 그나마 적은 예산을 쪼개서 더 많은 사업을 선정해줬다는데, 원래 공교 날 때와 다르다면 사업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예술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는 집행 내역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예술인 사례비는 책정이 돼 있지만, 회의비라든지 다과비나 기품 구입비, 연습비 등 다른 사업에서는 당연히 허용되는 부분들이 전혀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심층면담



기획분야 전시 지원사업을 놓고 보면 충남은 400만~ 5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전라북도는 300만 원으로 동결해서 충남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충남은 스페셜한 어떤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술가 한 명한테 주고 해외 지원사업이나 해외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미술분야 충남에 전시 장소가 많이 없고 서울·경기에 비해서 대관료가 좀 싼 편이니 예산을 조금 낮게 책정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티스트 비용을 책정한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작가의 기본적인 수고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국악분야 담당자마다 집행한 예산에 대한 부분 정산부분이 달라져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담당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자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에는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해요. 도, 시 재단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알아보고 공고문이 나가거나 교부 신청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힘을 실어줘서 문화재단이 예술진행사업 쪽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분야 지난해에 지역 문화인력 양성 사업 강의를 들었어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홍보가 너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의 내용이나 강사들의 열정에 비해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 수업의 퀄리티가 동시에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원사업의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전시 계획 30일 전에 지급되니 어려움이 큼니다. 행정 절차 상 딜레이되는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음악분야 지원 사업의 기회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한 분이 다 처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산을 할 때 특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재단하고도 사업을 같이 해보니까 조금 더 비교가 되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거든요. 실무 인력이 좀더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국악분야 예술인패스로 회원들 간의 연대와 도, 시와의 연대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등 예술인패스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하는 이유는 직접 가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술인 패스를 실질적으로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술인 패스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데 이용되는 것 정도입니다. 문화생활 20%, 30% 할인도 좋지만, 예술인패스로 연대를 만들어서 회원패스로 할인해 준다든지 (영상제작 할인, 설치미술 할인 등), 시, 도와 협약을 맺어서 음향이나 녹음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나 큰 연습실, 연습공간이 필요할 때 할인해주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웹툰분야 예술인 패스는 생활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 등록이 되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예술인 등록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술분야 예술인 패스를 받아서 다방면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한 지원금을 비롯해 몇몇 지원금도 받았습니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예술인 패스를 통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분야 저는 등록을 했는데 주위에 안한 예술인들이 많아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술인들이 행정적인 것에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예술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서류가 들어간다 싶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안 하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5.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국악분야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를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되고 제안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하시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이런 큰 틀에서만 얘기하니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자세히 얘기해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 가서 그런 sns 교육을 들을 때가 많은데, 예술인들한테는 솔직히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는 다른 기업과는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기획분야 기획자 양성과정 같은 것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재단에서 총남 단체장들과 예술가들을 모아주는 작업들을 여러 번 했고, 저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나는 작품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글을 써야 되나, 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워하는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너무나 막막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답답하실 때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래도 교육은 끊임없이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작품관리라든지 전시 방법, 표현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웹툰분야 청년기획단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란 좀 다르긴 했지만 보는 시선이 좀 넓어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만화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모여서 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



미술분야 어떤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실무 교육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항상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악분야 기획서 작성이나 정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던 상태여서 적지 않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좀 포괄적인 느낌이기는 했어요. 예술인들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정산 등과 같은 행정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협업을 한 선생님들한테 원천 징수를 하고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절차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부분도 있고 틀리면 정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정산, 운영, 행정까지 본인이 떠맡아서 한 번에 해야 하니 오히려 예술 작업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세한 실무교육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담분석 및 시사점

지역 내 청년예술인의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터뷰 진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른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지정이 달라 복지 및 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런데 지역에서는 만 34세까지 될 때도 있고, 충남은 만 39세까지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청년 예술인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충남도 되고 각 지역도 되고 그렇습니다..." -국악분야

위의 인터뷰 사례처럼, 지역 내에서도 복지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관련 지자체, 유관 기관, 단체 등에서 사업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청년'의 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숙의과정이 필요하며,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는 분야 별 예술인의 세대 비중 등 고유한 지역적 특성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 예술인은 이제 예술인으로서 처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라서 미숙하고 또 기회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술분야-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당위와 타당성은 인터뷰에서처럼 전문영역 진입 과정기에 있어서의 미숙함과 취약한 활동기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지정'과 함께 지원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은 예술인 지원에 있어서의 대상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편,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야별로 '예술활동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다르다는 부분이다.

"판화는 기계나 장비들이 필수입니다. 그냥 페인팅 하는 사람들처럼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못해요. ... 일단 넓은 작업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지던시에 참여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미술분야-

"...개인적으로 연습할 스튜디오를 빌려야 하니 부담이 되겠지요. 현재 공주문화재단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1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위의 인터뷰 사례처럼,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과 레지던시 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작업공간 마련과 레지던시 사업 추진보다는 사업대상자가 바라는 공간 지원, 레지던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실, 연습실에 대한 대여, 대관 등의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지원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예술활동의 특징을 반영하여, 작업공간 지원을 추진하고, 거점 작업공간 조성 등은 예술인의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과 같은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충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에 인터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일회적, 단기적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 지원과 지역예술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현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자의 사업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소액으로 나누고 감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스란히 사업 실행의 부실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쪼개서 200~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분야-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한 예산 대비 거의 절반이 감액되어 선정이 됐어요. 그나마 적은 예산을 쪼개서 더 많은 사업을 선정을 해줬다는데, 원래 공고날 때와 다르면 사업진행이 어려워집니다. ... ”-음악분야-

“... 충남은 스페셜한 어떤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술가 한 명한테 주고 해외 지원사업이나 해외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 -기획분야-

또한 문화재단의 사업운영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담당자 교체 시 사업 인수인계, 사업 홍보 부족 등에 아쉬움이 나타났으면 이는 행정 실무인력의 부족과도 연결되고 있다.

“...담당자마다 집행한 예산에 대한 부분 정산부분이 달라져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악분야-

“... 홍보가 너무 되지 않아 수강생들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의 내용이나 강사들의 열정에 비해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 수업의 퀄리티가 동시에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행정 절차 상 딜레이되는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미술분야-

“...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 정산을 할 때 특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무 인력이 좀더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음악분야-

이렇게 본다면 충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 확보와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행정 실무인력 충원, 사업 홍보 강화 등으로 관련 민원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술인패스'를 통한 실질적 혜택의 확대와 '예술인 활동증명'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 예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하는 이유는 직접 가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술인 패스를 실질적으로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 시, 도와 협약을 맺어서 음향이나 녹음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나 큰 연습실, 연습공간이 필요할 때 할인해주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국악분야

“ 행정적인 절차로 서류가 들어간다 싶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안 하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음악분야-

충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대상지원자가 만족을 표했다.

심층면담

".... 청년기획단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란 좀 다르긴 했지만 보는 시선이 좀 넓어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 강의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모여서 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웹툰분야-

".... 어떤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련 실무 교육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항상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술분야-

"기획서 작성이나 정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던 상태여서 적지 않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 사업에 대한 정산, 운영, 행정까지 본인이 떠맡아서 한 번에 해야 하니 오히려 예술 작업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세한 실무교육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분야-

문화인력양성사업'이나 '기획자 양성과정', '청년기획단' 등 기획 실무 교육에 있어서의 기획서 작성이나 정산 부분에 대한 교육 등에서 예술인들의 사업계획과 실행에서 있어서 효과, 기여를 했다는 평가는 오히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며 사업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경우는 홍보가 중요한데, 교육대상자의 확대, 운영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의 강화는 사업의 내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술대학 교육과정 (예비예술인)

예술대학 교육과정



미술분야 교육쪽에 있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실기만이 아닌 학생들이 미술사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고 필수과목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기능적인 부분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용분야 계약서 쓰는 법, 기획서 쓰는 방법, 부당대우에 대한 주의점, 대처방법 같은 것도 학교에서 교육해 주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보라고 하지만 잘 안보게 되요.

장점



기획분야 지방에서 활동하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미술계의 흐름을 보면 작품이 굉장히 대 형화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 활동은 이 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큰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비용에 대한 면들이 조금 절충되는 부분들이 있 는데다가, 지방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 성장하기에는 알맞은 터전이라고 여겨집니다.



미술분야 충남은 흔히 예술 불모지로 여겨지곤 합니다. 충청도는 서울하고 가까워서 오히려 발전이 더 디데다가 특히 청년 작가나 청년 예술인들이 서울로 진출하다보니 또래의 동료작가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블루오션이 되어 서울보다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음악분야 지역 활동의 장점은 확실히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예술인이 적기 때문에 경쟁 또한 덜 치열 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



기획분야 기획자로 친다면 굉장히 다양한 기획자와 다양한 생각들을 접해야 배우는 게 많은데, 지역 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사수를 만날 기회가 좀 적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만나는 사람끼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 사고가 좁은 시각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많 이 있어요.

타 지역 사람들과 연계 작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을 베이스로 타 지역의 작가들을 모은 경 우는 많은데 충남을 베이스로 타 지역 작가들이 모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의 예술가가 모여서 지역의 미술계 정황도 파악하 고 기획전을 열 기회가 많았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기획 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타 지역이 부러워요.



웹툰분야 서산시 같은 경우는 만화계통 지원이 적더라고요. 만화, 웹툰 지원은 고양시, 서울, 부천, 그 다음에 의외로 대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개는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이라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고양시 프로젝트 중에 전국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있어서 지원해 본 적 이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해 보고 싶어요.



음악분야 지역 활동의 단점은 예술인들이 없어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 협업을 하려고 해도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힙니다. 공연장을 비롯한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면담분석 및 시사점

지역 예술인의 활동여건 및 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지역은 입지적으로 국토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타 지역, 타 장르 예술활동과 네트워크 협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덜하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이에 반해 창작활동 거점이 열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의 제약은 좋은 인적 자원들이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충남지역으로 타 지역 예술인의 유입이 많아질 수 있는 요소이면서 정착이 어려운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술활동 협업과 네트워크 교류, 기회제공을 바탕으로 유입된 예술인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인프라 마련과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이 제기된다.

예술관 및 자기 인식

1. 예술가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기획분야 저는 예술가는 다른 장르보다는 권위나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투명하게 이익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분야 생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나아진 삶이고, 예술은 어떤 삶을 확장시켜주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의 예술 작품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그림이 이야기 매체로 스토리로 변할 수 있잖아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어떤 플랫폼은 이집트 문명보다 더 오래된 몇 천 년이 넘는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끝나지 않으면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음악분야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있잖아요. 시 예산을 지원해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만들고 운영을 위한 세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코로나 극복 콘서트를 기획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스토리에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예술이 가진 힘이 아닌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힘이 아닌가, 예술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예술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예술가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예술 활동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웹툰분야 예술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술이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프로젝트성으로 다루고 있어요. 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 작업 활동의 목표이자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술가로서의 고민



기획분야 지역에 막상 좋은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 단체나 지역 예술가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좋은 것은 다 서울이라든지 큰 곳으로 몰리는데, 좋은 사업들이 지역에서 수행되는데 정작 지역 예술인들을 쓰지 않으니 아이러니합니다. 간혹 지역 사람들을 쓸 때가 있는데, 지역 안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미술분야 충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여러 지역에서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 전시도 잡혀 있기는 한데 좀 충남권이나 천안 전시가 제일 많아요. 지역 작가로 남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음악분야 작년에는 솔직히 결혼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접어들어 제가 노력한 만큼 1년 1년 연장되는 게 작년이라고 생각을 바뀌었어요. 그렇게 올해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점점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1년 1년 이 사실 불안한 게 예술인이고, 전업 예술인이 아니니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랑 부업을 하는 시간을 분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3. 예술가로서의 향후 계획



국악분야 무대에 서서 부르는 가창자 입장에서 40대가 넘으면 무대에 서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40대 초반에 접어들면 주변 예술인들도 비슷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지 않고 우리 팀원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한테 세우려고 하고, 설 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청년, 청년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기획분야 매해마다 다음 연도에 사업에 대한 pt에 뛰어들고 될까 말까하며 마음 조리는 일을 거의 십수 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겠지만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좀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한 20% 정도만 욕심을 내서 좀더 확장시켜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기획자니까 좀 더 추가시키고 미리미리 작성을 해놔서 공모가 몰릴 때 부담 없게끔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심층면담



미술분야 항상 불안하긴 하죠. 언제까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전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갖고 있지만,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대작가가 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꾸준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림을 놓지 않겠다가 목표입니다.



음악분야 코로나 때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연이 아예 안 되니 진로를 변경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그만 두셨어요.

면담분석 및 시사점

지역 예술인의 예술관은 지역사회에 있어 문화예술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시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 충족 여부에 따라 예술작품의 속성과 가치가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예술단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는 지역과의 밀착성을 전제로 독자적인 문화예술로써 차별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지역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활성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부분인면서, 한편으로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지원자, 향유자가 예술지원에 대한 의식,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4장 전문가 심층 의견

전문가 심층 의견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문학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안정이다. '지역예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정책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된다면, 청년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지원정책사업으로는 공공지원사업의 일정부분을 청년예술인들에게 배분하여 청년예술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시 (공연, 전시 출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원의 기회를 확대한다.

무용 전문가

현재 충남문화재단은 광역단체 중 6.37억 원으로 경기(9.81), 경북(6.94), 경남(6.56), 다음으로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지원사업 전담조직의 운영이 없지만 지역에서 꾸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 아쉬움을 대신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지원에 대한 기초적 도움이다. 청년예술인들은 최소한의 장치로 기금(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예술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의 변경이라든지, 지원서류 도우미를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 개개인의 경우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심층인터뷰의 의향은 "어렵다"는 데 있다. 청년예술인은 같은 연령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즉, 늘 새로운 청년들이 청년지원사업의 연령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당자의 로테이션과 부재시의 사업진행, 교부금의 낮은 정산 등 행정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아 초년병이자, 첫 지원자들의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그들의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판화에 한정된 경우이지만 타장르(무용, 합창)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판화는 레지던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커다란 기계가 무겁고 크니까 그것을 옮겨서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르에 따라 적합한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

음악 전문가

서울에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이 있다. 장르별로 공연을 선정하고 우수 공연을 뽑아서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도는 서울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청년들만 지원하는 방방곡곡 사업에 비견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방방곡곡 사업처럼 청년이라는 나이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트랙이 충남에도 필요하다. 이 트랙은 지자체와 전국이 5:5로 지원해서 공연할 수 있는 트랙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선례가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문제이다.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는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은 공연 횟수가 많은 기존 단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선정 평가지표를 청년단체나 신진 단체가 맞추기 어렵다. 공연장 상주단체도 청년과 기성 예술인 투 트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리그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생애처음창작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사업은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야 한다. 정교한 사업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도가 절실하다. 즉 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클래식음악을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만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실내악 단체 지원사업, 독주자들만 지원하는 사업 등. 각 예술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심사 시 주로 연주 횟수가 더 많은지, 전시를 여러 번 했는지 등 양적행위에 가중치를 두는 것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팀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잘하는지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음악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연주자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심하게 분류된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시각 전문가

청년예술인을 위한 충분한 예산 책정이 절실하다. 모든 예술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만 충분하다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교육 전문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사업이란 것 자체가 예산 없이 성립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쪼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지원에서 소외된 단체나 개인은 민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나 개인은 소액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지원사업 진행 기관은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무한 반복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산 증액이 만병통치가 아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키포인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문학 전문가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술작품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사업소 등)나 메세나운동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인들의 지정기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청년예술인들은 경력이나 지원조건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보의 교류와 공공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교육, 홍보를 통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지역 '지역예술인카드'를 발급하여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료구입과 운영비, 문화시설의 이용 등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무용 전문가

복지카드를 들 수 있다. 다만, 활발했던 메세나 사업의 경우 재단이나 예술총연합회에서의 복지활용의 주선이 주춤하다. 각 장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연계활동과 홍보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음악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하는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내재돼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공연과 연주를 조언해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 예술 컨설팅이 필요하다. 기성예술가들보다 부족할 수 있는 자질이나 예술성을 컨설팅 전문가들이 듣고 보면서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러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과 작품을 서로 봐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고 싶었지만 가까이 접할 수 없었던 대가나 스승, 선배들과 분야별 평론가들과의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주면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충분한 연주 개런티가 없다. 대학에 전임이 되거나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과 같이 정규직에 속해있지 않은 이상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공연에서 나머지 시간은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최소한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예술가들을 정책을 통해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어떤 사업은 많이 주고 어떤 사업은 적게 주는 일이 계속되면 공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연을 할 경우 적은 액수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 정규직에 속한 예술가들과 분류해서 프리랜서 청년 예술가들의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전문가 심층 의견

예술교육 전문가

청년예술인들만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기성예술인들과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보다는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예산지원, 행정도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술인패스의 경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예술인패스를 받은 예술인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니, 꼭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이 예술인패스에 등록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문학 전문가

현대는 협업이 시대다. 예술과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서 지속적인 예술활동과 청년예술인들의 자립을 도모한다.

예술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업기획서 작성이나 정산, 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무용 전문가

젊은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충남도내의 거주여건으로는 지역에서 좋은 사수를 만날 기회가 적다고 여기며 항상 비슷한 예술인 만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타 지역 사람들과 연계 작업을 주선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도시의 예술 격차를 해소하는 방편으로도 여겨진다.

음악 전문가

현재 청년예술인 교육은 각 예술대학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대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낙후되어 졸업 후 필요한 과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대학에서도 예술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면서 폐다고지, 문화예술교육사, 미디 등 자격증 취득 수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교육사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가르친다. 실기만 하는 전문연주자 말고도 대학에서 강좌를 맡아 문화예술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 청년예술가에게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기획 등 실무를 가르쳐 전문 예술가를 넘어 다양한 기회를 준다. 실기 외에도 사회에 나가서 교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해야 된다.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좋으면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음악사나 미술사를 제대로 이수하고 평균 학점이 높은 친구들에게는 사회에 나가 서양음악사, 서양미술사 등 각 분야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중 장년층이 예술을 교양으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대부분 크다. 지금은 지역 곳곳 문화회관에서 예술을 강의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청년예술인들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래식음악 전문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회수에 맞는 음악회 관람이 필요하고 관련 예술 ppt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음악사에 대한 지식도 상당 수준 갖춰야 한다. 그런 예술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대학과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필요한 수업에 음악 전문해설사를 연결할 수 있다.

시각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이 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 및 창작 지원금을 확대해 창작금을 작품 재료비 지원만이 아닌 기본 생활 지원금까지 폭을 넓혀 간다면 떠나간 지역 젊은 인재들을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예술교육 전문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상위정부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지원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1년 차에 문화예술기획기법을 교육하고 2년 차에는 실제 지원사업에 지원해서 선정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효과 큼니다. 청년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예술인들이 서류작성 및 행정을 진행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젊은 예술인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공관련 부분에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공 관련 신기술이라든지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력 연마가 필요한데 청년예술인들이 전공관련 교육을 받고자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청년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문학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의 애향심과 일부 예술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청년예술인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훌륭한 사람의 예술인이 한 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그 도시의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나아가 청년예술인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예술인들이 충남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 그 방안으로 '1기업 1청년예술인 1촌 맺기', '젊은 예술인 선정', '예술인 마을 활성화', '청년예술인대회' 등을 개최하여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예술인들이 행복한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

음악 전문가

전반적으로 미술 전공 청년예술인들은 쉐어하우스를 잘 활용하고 있다. 문학하는 사람들도 특정 지역과 집에 모여 하루종일 글을 쓰며 작품을 탈고한다. 이러한 쉐어하우스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기에 문학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글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이 나온다. 쉐어하우스는 음악 전문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연주자들이 연습실을 사용하고 식사비도 일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음악이야말로 소리의 예술이기에 집에서 연주하기가 녹록치 않다. 지자체가 청년예술인들에게 연습실을 연결해주고 연습실 운영기관에 사용비를 지불하며 식사 쿠폰도 제공한다면 청년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자신의 연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주 시립미술관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창작 레지던시가 있다. 해외 작가들도 이곳에서 작품을 하고 전시한다. 교류 전시도 해외에서 한다. 시각예술과 문학, 연극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작 레지던시가 음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음악 전문가에서의 모델이 없다. 교류를 위한 레지던시가 필요하다.

시각 전문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은 충남에는 무궁무진하다. 분야별 청년예술인들이 모여 그들만의 창작공간을 만들어 청년

전문가 심층 의견

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의 청년예술마을이 형성되고 축제로 이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우리들만의 청년예술마을이 아닌 외국인 청년예술인과의 네트워크로 입지 조건이 좋은 충남에서 세계의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창작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예술교육 전문가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로컬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로컬에디터들이 역에 살면서 지역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글과 사진 등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문화예술분야에도 로컬에디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진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예술인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문학 전문가

예비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지만, 예비청년예술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나 활동사항이 미약하고, 또 스스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진로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전문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예비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양성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교육과정을 통하여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다음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정을 이수한 후, '예비청년예술인을 위한 장학금'(학교나 기관추천), '창작지원금', '활동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전문가

예비청년예술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실제 연주와 창작, 실기, 공연 외에도 새롭게 도전해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기에 무엇을 해야될지 모르는 예비청년예술인을 가르치고 정보를 줄 능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열려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실질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선배예술인들이 멘토 멘티가 돼서 후배 예술인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술성은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원사업과 정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미술, 연극 등 각각의 예술 특성에 맞춰 정책을 실행하는 현실에 대한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듣게 한다. 현실에서 정보가 없는 청년예술인들은 계속 지원을 못 받고 정보가 있는 예술인들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현상이 있다. 자신이 지닌 예술관을 제도권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대일 멘토 멘티도 필요하고 예술장르와 지역에 맞춰서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시각 전문가

예비청년예술인들 그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가 나를 위해 찾아주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예로 어디서 어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가나 또는 신청서 작성법이 어려워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듣곤 한다.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면 많은 사업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술교육 전문가

지역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학생들을 참여 시키기 위해 관련학과와 접촉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단기사업의 경우에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단기이고 페이 부분에서 다른 아르바이트 보다 적다고 생각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기관에서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재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술인지원사업에 예비청년예술인들이 지원할수 있는 분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문학 전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다. 특히 성폭력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예술인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무용 전문가

동영상의 교육적 이수방법을 제안한다. 필자의 경우, 매학기 받는 대학자체의 성폭력, 성평등 문제의 이수수업에서 스스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용하는 용어자체에서도 인지능력이 개선된다. 얼마 전 인하대 여대생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성폭력, 성평등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견해다.

음악 전문가

예술계에서 성폭력은 흔치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음악은 1:1 레슨을 하기에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영화나 공연예술계에서 권력을 진 감독이나 지휘자, 유명 예술가에 의해 성폭력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예술도 선배나 기득권으로부터 야기된 권력관계가 분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해야 할 센터는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음악계는 여성구성이 많음. 남성들이 그만큼 확률이 높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성평등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예술은 오히려 실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실력부족을 감출 수 없기에 오히려 실력이 있으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성평등의 문제보다는 실력의 문제가 더 중요한 척도다.

예술교육 전문가

우리사회가 이제는 성폭력, 성평등 문제에 많이 민감해져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기는 할텐데 근래에 성폭력, 성평등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부당대우

문학 전문가

예술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 예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편하게 상담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고 조율해

전문가 심층 의견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 의무화(기본 계약서양식 제공)

무용 전문가

여전히 존재하고 협상할 수 없는 갑과 을의 시스템에서 그들의 처한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예술인 분야와 연계된 갑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대우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스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악 전문가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청년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예술계도 다양한 이유로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이 아닌 40~50대는 특별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실제 10여년 전만해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사업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청년 정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더 양질의 큰 수입이 없을 뿐이지 전보다 기회는 훨씬 많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예술계 정책은 청년으로 편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60~70대는 고도성장기라 기회가 많았고 20~30대는 정책적인 지원이 풍성하게 펼쳐져있다. 40~50대가 낡은대로 혜택도 지원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청년의 숫자가 적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이기에 청년예술가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예술교육 전문가

공연, 전시, 행사 등에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사업예산 증액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소액대건 위주의 지원사업 방향성 때문에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대우의 목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당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그래서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문학 전문가

아직도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활예술인이 아닌 전문예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그러나 인맥이나 사회적 관계, 또는 공익의 목적 등의 이유로 재능기부를 요구해오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개런티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사용자측에서 정하는 금액을 따르는 게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한 장치(개런티 규정이나, 지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들이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술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인 스스로 열정페이나 재능기부를 지양하도록 하여 예술인의 권익과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음악 전문가

공식적인 의미에서 재능기부 음악회는 거의 다 없어졌다. 예전보다 열정페이라는 말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 열정페이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민감한 사항이기에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열정페이는 안한다.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교수나 선배들이 요구하는 열정페이는 아직 존재한다. 오히려 기성세대의 각성과 계몽

이 필요하다. 교수나 기득권을 가진 윗세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열정페이나 재능기부는 거절하기 힘들다. 부당한 지시를 받는 재능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나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시각 전문가

예술인들을 이용하여 페이도 없이 재능기부만을(무료연주, 무료벽화 등)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예술가들의 문제인 것 같다. 특히 청년예술가들이 내 가치를 높인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본다.

예술교육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열정페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으면 적은 기회이나마 날리는 상황이 될 텐데, 쉬이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야 합니다. 공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비싼 게런티를 줘야 하는 이름난 공연자를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자들에게도 공연기회를 많이 줄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복지,제도

문학 전문가

청년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 청년예술인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비하여 활동의 기회도 적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도가 약하다. 지원 방법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다. 예술인카드와 같은 직접지원 방법과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전시(공연)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청년예술인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무용 전문가

예술인패스에서 청년들은 회원들 간의 연대와 도, 시와의 연대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등 이것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였으면 한다. 그들이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즉, 그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문제의 개선점의 변화가 적다는 견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젊은 예술가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꿈나무 육성에 투자할 수 있는 개안(開眼)이 요구된다.

음악 전문가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고용보험도 법적으로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세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과 겹치기에 다시 적지 않는다.

예술교육 전문가

지원사업 및 레지던시 사업 등 직접 청년예술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서 청년예술인 구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만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기성예술인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청년예술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심층 의견

소도시의 예술 격차 해소 방법

문학 전문가

대도시와 소도시의 예술 격차는 기회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소도시의 젊은 예술인들이 대도시로 활동지역을 옮기면서 소수의 남은 이들은 다양한 형태와 사고로 함께 작업하고 발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교류나 협업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소도시의 예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지역(다른 예술가)들과 교류(전시 및 공연, 또는 공동작업)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므로서 사고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음악 전문가

현실적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와의 격차는 극복하기 힘들다.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조건 서울과 비교하고 더 낫지 못한 현실만 한탄하면 문화예술의 자생력이 사라진다.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가장 맞는 음악프로그램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도 뉴욕, 파리, 런던 등 대도시와 각 지역은 규모와 내용에서 격차가 있다. 핵심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의 발달이다. 일부러 격차를 해소하기보다 각 지역마다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인다.

어떻게 대도시와 격차를 줄일지는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과 전문 예술가들이 각각 그 방법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공연관계자들도 관객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소(병원, 광장, 요양원, 기관 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은 자꾸 봐야 익숙해지고 보는 안목도 생긴다. 기관이 장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관객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필요하다.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교육강화와 찾아가는 미술관, 공연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에 비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성과가 당장에는 나지않더라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문학 전문가

경기문화재단-상상캠퍼스 운영 프로그램

예전 서울 농대 자리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의 상상캠퍼스에 입주한 젊은 예술가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여러 편의시설을 활용하며 쾌적하고 안정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강의와 프리마켓 운영 등 경제활동도 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예술활동과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음악 전문가

한국문화예술원은 창작과정을 중요시하는데 대부분은 결과물로만 평가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양한 예술 융합을 위한 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는 리더나 과정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전에서 2015년에 결성된 유벨톤 오케스트라는 청년 예술가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결성된 단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난이도 있는 음악을 통해 실력을 끌어올려 청년예술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청년 아티스타는 전문연주자들의 집중과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춘 마이크는 대중음악부터 클래식에 이르는 지역 청년 실내악 단체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음악창작소는 연습실 빌려주고 녹음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는 그래도 청년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술교육 전문가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직문화 개선, 지원 예술동호회 교육, 기업의 홍보마케팅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청년예술인을 매칭하여 기관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예술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직무영역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심층 의견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 종합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청년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정책사업 일환으로 '지역예술인 복지카드'를 발급, 청년예술인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기여(2인)
- 공공지원사업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술인에게 배분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활동 인센티브제를 통해 지원 강화
- 청년예술인 기본적 예술지원에 대한 행정지원 필요. 예술활동 증빙서류 변경이라든지, 지원서 작성 등과 같은 작성 보조 필요함
- 사업운영과 관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사업정산 지연이나 행정미숙이 발견됨. 이는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담당자 전문성 확보와 행정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행정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 서울지역의 경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장르별로 공연을 선정하고 우수 공연을 뽑아서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남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우수 공연 선정 공연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 필요
- 공연장 상주단체 선정에 있어서 청년과 기성 예술인으로 구분, 청년예술인이 소외, 이탈을 방지하는 투 트랙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분야별로 차별화된, 클래식음악을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만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실내악 단체 지원 사업, 독주자들만 지원하는 사업 등 각 예술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전문 분야별 사업 지원제도가 필요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재원확보 필요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 창작활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문화재단, 문화사업소 등)의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필요함(3인)
- 메세나 운동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인들의 '지정기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2인)
-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공공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교육, 추진 복지사업의 홍보를 통한 행정지원 필요
- '지역예술인카드'를 발급 추진,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료구입과 운영비, 문화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혜택 제공
- 청년예술인에게 조언해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 예술컨설팅이 필요. 스승, 선배들과 분야별 평론가들과의 만남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청년예술인의 예술적 완성도를 고양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함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 전문가 초빙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교육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필요, 타 분야와 협업의 장을 마련, 예술활동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청년예술인의 자립을 도모 (4인)
- 사업기획서 작성이나 정산, 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3인)

청년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 청년예술인들이 충남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구체적 방안으로 '1기업 1청년예술인 1촌 맺기', '젊은 예술인 선정', 예술인마을 활성화, '청년예술인대회'등을 개최하여 도내 청년예술인 정주 여건을 개선, 향상해야 함(2인)
- '쉐어하우스'는 음악 전문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예술활동을 위한 연습실 대관, 식사 쿠폰 같은 식사비 일부 지원 등도 요청됨
- 지역과 세계를 연결, 교류할 수 있는 음악 창작레지던시 기획 제공도 필요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 예비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진로의 변경 가능성이 높음. 이들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 환경 필요(3인)
- 예비청년예술인이 지역 내 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강혜원) 일례로 분야별로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예비청년예술인을 위한 장학금'(학교나 기관추천), '창작지원금', '활동지원금'등을 통해 이들의 전문예술인 영역의 초기 진입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인)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예술인이 되도록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필요(2인)
-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례처럼,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해야 할 성폭력신고센터 운영필

부당대우

- 예술인 부당대우에 대한 상담 및 당사자 민원해결을 위한 해당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2인)
- 계약서 작성 의무화(기본 계약서양식 제공)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 전문예술인에 대한 인식 부족 인맥이나 사회적 관계, 또는 공익의 목적 등의 이유로 재능기부를 요구(4인)
-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한 장치(개런티 규정이나, 지침)를 마련할 필요(3인)
- 예술인의 권익과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예술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 복지, 제도

- 예술인카드와 같은 직접지원, 실질적 혜택 방안과 청년예술인의 작품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전시(공연)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요청(2인)

소도시의 예술 격차 해소 방법

- 소도시의 예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지역(다른 예술가)들과 교류(전시 및 공연, 또는 공동작업)가 필요
- 그 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사업프로그램 추진 필요
- 공연장 외에 다양한 장소(병원, 광장, 요양원, 기관 등)에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 경기문화재단의 '상상캠퍼스'에 입주한 예술가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여러 편의시설을 활용하며 안정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강의와 프리마켓 운영 등 경제활동도 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예술활동과 생계에도 도움이 됨
- 대전에서 2015년에 결성된 유벨톤 오케스트라는 청년 예술가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함
- '청년 아티스타'는 전문연주자들의 집중과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임.'청춘 마이크'는 대중음악부터 클래식에 이르는 지역 청년 실내악 단체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음악창작소'는 녹음실, 연습실 대관 지원을 하고 있음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5장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조사대상 17개 시·도 문화재단, 서울, 문체부, 국토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예종, 한국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조사범위 2022 현재 기준
조사방법 유선인터뷰, 문헌조사 등
조사내용 지역별 청년예술인 인원수, 지원건수·예산·분야·정책·성과 등

1. 지역별 청년예술인 인원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기준 ('22. 7. 1 기준)
 청년연령기준 (20, 30대)

<표 62> 지역별 청년예술인과 전체예술인 비교

시도별		청년예술인	전체예술인	청년예술인 비율 (%)
계		73,898	140,614	52.6
충청권	충남	1,086	2,054	52.9
	대전	1,773	3,693	48.0
	충북	893	2,432	36.7
	세종	309	835	37.0
수도권 및 광역시	서울	34,204	52,892	64.7
	경기	17,376	32,061	54.2
	부산	3,256	8,341	39.0
	대구	2,209	4,343	50.9
	인천	3,473	6,240	55.7
	광주	1,449	3,354	43.2
	울산	720	1,956	36.8
중부권	강원	1,027	3,054	33.6
전라권	전남	746	3,405	21.9
	전북	1,849	4,039	45.8
경상권	경남	1,879	7,419	25.3
	경북	929	2,354	39.5
제주권	제주	720	2,142	33.6

2. 지원건수·예산·분야·정책

지원사업유형

- 지역 청년예술인의 인프라확충과 지원확대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지역문화재단에서 수행 사업유형에 따라 창작(자)지원활동, 활동지원, 창작기반지원, 창업지원, 연구교육 지원사업, 해외교류사업 등 구분

가. 창작(자) 지원

대상: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추진

자격: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적거나 혹은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나. 활동지원

대상: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공간(발표,연습), 교육, 홍보, 멘토, 네트워킹 등의 간접지원포함

방법: 상금형태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로 지급

다. 창작 기반 지원

대상: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공간지원 형태

방법: 우선 대관기회제공, 대관료를 지원

라. 창업 지원

대상: 청년예술인 대상

방법 및 지원유형: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대중에게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마. 교육(인력양성) 및 연구지원

대상: 청년예술인 대상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사업추진

방법: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바. 해외교류

대상: 지자체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과 관련하여 문화교류

방법 및 지원유형: 공모사업, 교류사업, 교육사업 등

3.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인 정책방향 예산 등 향후 로드맵

가. 문화비전 2030의 청년예술인 관련정책

인력양성 및 연구지원 정책

- 인력양성기관지정: 지역청년문화 활동가, 문화관련대학졸업자 대상교육
- 지역 읍면동에 청년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문화적 재생, 문화활력
-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지식기반공유 인력양성“콘텐츠 원 컴퍼스”확대
- 문화협력 프로젝트 실패극복, 재기지원

해외문화교류정책 확대추진

- 문화동반자사업,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사업 등 해외예술인력 국내초정 프로그램의 심화 국내문화인력 해외 파견 등 쌍방향 예술인력교류프로그램 확대
- 아시아국가 중심의 청년예술전공자 한예종 AMA 장학생 지원프로그램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대

나. 새 예술정책의 청년예술인 관련정책

인력양성 및 연구지원 정책

- 예비, 신진예술가 진입 경로 확대
-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을 지원
-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 (Slow Arts Factory) 추진
- 예술 투자 확대 (연극·청년작품 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
- 예술 기반 사업 개발 및 창업 지원

문화외교 해외지원프로그램

- 예술분야 매개인력 지원 확충 및 예비/청년 기획인력의 해외축제, 공연장 등 진출 지원 추진
- 예술을 통한 문화외교의 전략적 확대, 아시아 ODA 수원국의 청년예술인재를 한예종 국비장학생으로 선발, 학·석사 과정 이수 지원

4.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표 63>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비기너스 프로젝트 1. 최초예술지원 2. 소액다컴	2013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운영 중인 '작은예술지원사업 : 소액다컴'의 운영모델을 차용하여 '최초예술지원'의 시범사업으로 '비기너스 프로젝트' 시행	2016(1.8억원)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 3.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청년예술지원사업 본격적으로 시작 -'서울청년예술단'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운영	2017(75억원)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서울청년예술단 3.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명 청변경)	-'서울청년예술단' 서울문화재단으로 사업이관 -'민간청년문화예술공간지운' 사업 수정 보완 후 '청년예술공간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예술지원사업에서 지역문화팀사업으로 이관	2018(70억원)
청년예술지원사업 1. 최초예술지원 2. 서울청년예술단 3. 청년예술공간지원 4. 기획형 청년예술단	-창작지원팀(총괄)+창작공간(운영) > 예술기획팀으로 통합 운영 -'기획형 청년예술단 : OOOX청년예술단' 운영	2019(90억원)
A트랙(신진)/예술인 직업세계 형성	예술인으로서 직업세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컨설팅 등 지원	2020~2022 지원사업 혁신 트랙별 3단계 (청년/비청년구분없음)
B트랙(유망)/직업세계 안정화	차별화된 직업세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전문가비평, 예술인간 상호 학습/연구모임지원	
C트랙(중견)/예술계 향유자 대상 영향력 발현 및 가치형성	영향력, 가치, 성과를 보다 넓게 확산하기 위한 아카이빙 지원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5. 다른 시도별 예산 현황

- 17개 시도 : 123개 사업, 15,975,350백만원 (22년 예산액 기준)

<표 64> 다른시도별 문화예술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수	예산액	비고
충청권	충남	8	637,200	
	대전	9	1,208,000	
	충북	4	280,000	
	세종	3	515,000	
수도권 및 광역시	부산	18	2,935,000	
	대구	12	1,118,000	
	인천	14	2,982,450	
	광주	11	1,143,500	
	울산	8	782,000	
	경기	11	981,000	
경상권	경남	14	656,700	
	경북	7	694,000	
전라권	전남	5	268,000	
	전북	8	534,000	
제주권	제주	4	483,000	
강원권	강원	1	174,000	
문체부		11	26,952,000	

6.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충청권

<표 65> 충청권 청년예술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충남	계(8)	637,20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61,200	85명 선정
	생애최초·신진예술 창작지원 청년예술가 아트페스티벌	322,000	대상자 수 90명
	청년 아트프리마켓	15,000	보령시
	청년센터 추가구축(토지매입예정)	170,000	아산시
	문화축제 청년할당제	60,000	예산군
	청년기획단 운영(축제, 문화행사 등)	9,000	서산시
대전	계(9)	1,208,000	
	대전청년작가장터	80,000	25명 선정
	이응노미술관 청년작가 전시프로젝트	57,000	6명 선정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520,000	139건
	차세대 아티스타(artiStar)	150,000	18건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 지원	40,000	49건
	청년기획자 양성프로젝트	50,000	
	청년 유니브 연극제	50,000	9개팀
	DJAC 청년오케스트라 운영	203,000	50명 구성
청년작가 지원전(넥스트코드)	58,000	5작가	
충북	계(4)	280,000	
	충북청년축제(강연,토크콘서트,문화예술공연 등)	100,000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90,000	16명/인당 5백만
	젊은작가 창작작품 페스티벌	10,000	3명 공모 선정
청년예술단체지원	80,000	12개 단체 선정	
세종	계(3)	515,000	
	세종아트페어(시각예술)	92,000	
	청년문화공연	223,000	3개 사업
	청년예술가 육성(청년예술, 생애최초)	200,000	개인7, 단체1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수도권 및 광역시

<표 66> 수도권 및 광역시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경기	계(11)	981,000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600,000	200명/인당3백만
	청년터전(전시 및 프리마켓 개최)	30,000	수원시
	대학생 문화기획단(축제기획,콘텐츠제작)	3,000	수원시
	용인문화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예술교육기획,전시기획,영상촬영 등 지원)	6,000	용인시
	용인시립합창단 트레이니 운영 (프로합창단원 인턴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000	용인시
	무대예술연수생 교육훈련	7,000	용인시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231,000	성남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프로젝트 (청년예술가들의 도시문화 만들기)	6,000	성남시
	성남청년작가전(큐브미술관 개인전 개최)	24,000	성남시
	차세대전문활동 지원	50,000	부천시
	청년 아티스트 전시회	20,000	군포시
	부산	계(18)	2,935,000
부산청년문화공간(청년작당소) 운영		250,000	132회 운영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350,000	500명 내외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150,000	15개팀 선정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330,000	3개소 운영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72,000	41개팀
아트페어		70,000	30명
청문청답		40,000	청년백서 등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		80,000	15명
청년 문화 홍보 및 운영지원		150,000	디렉토리북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33,000	15개팀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200,000	60명
청년문화 축제		100,000	2개 사업
청년문화거리 조성		300,000	1개 사업
지역대학 비교과과정(예체능) 활성화		300,000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 지원		140,000	5명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250,000	35팀
기업협력형 창작지원 활동		20,000	3인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	100,000	100명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대구	계(12)	1,118,000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56,000	50명 수료
	수창청춘맨손 운영	160,000	130명
	DIMF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375,000	42명
	대구문화발전소 입주작가 프로그램	150,000	16명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150,000	15명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56,000	50명
	청년 미래플랜아카데미 운영	20,000	서구
	청년 미디어활동가 육성사업	5,000	서구
	청년예술제	60,000	남구
	청춘페스티벌	20,000	북구
	청년작가 활동지원	51,000	달서구
	청년 포럼	15,000	달서
인천	계(14)	2,982,450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332,450	450명
	청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180,000	3회 공연
	제물포 지하도상가 청년특화 문화공간 조성	70,000	
	역사 내 청년활동 공간 임대사업	0	추진중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	450,000	
	청년문화공간조성 및 운영	300,000	
	청년문화축제 지원	200,000	
	청년친화기획공연 지원	400,000	
	지역기반형 청년문화활동가 지원	400,000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100,000	
	청년복합문화공간 운영	506,000	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9,000	미추홀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13,000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12,000	미추홀구	
울산	계(8)	782,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72,000	5명
	청년문화 기반 구축	100,000	30명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100,000	300명
	거리공연 지원	50,000	
	스트릿 댄스페스티벌	100,000	
	생애처음 청년예술지원	40,000	10명
	울청아티스트(청년예술가) 지원	80,000	16명
지역청년예술단 운영	140,000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광주 및 전라권

<표 67> 광주 및 전라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광주	계(11)	1,143,500	
	청년문화예술기획자양성학교	130,000	15명(70강)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32,000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95,000	5명 선발
	청년 온라인 문화교류	21,000	3회/50명
	청년센터 조성	350,000	동구
	청년문화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167,000	서구
	청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198,000	서구
	청년예술가 창작활동공간 제공	27,000	서구
	청년동아리활동 및 문화공간 지원	47,000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및 버스킹데이	56,000	
광산무대나눔 화요문화산책	20,500		
전남	계(5)	268,000	
	청년페스타	20,000	여수시
	찾아가는영화관 사업(문화행복배달사업)	15,000	나주시
	미디어공작소 운영 (미디어기기 활용한 교육,창업)	198,000	화순군
	청년어울림 한마당축제	25,000	해남군
청년 프리마켓	10,000	영광군	
전북	계(8)	534,000	
	전북청년 어울림 한마당 컨퍼런스	60,000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슈issue>	50,000	10명 공모 선정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159,000	총 10개 장르
	전북청년 2022(미술분야)	46,000	3명 선정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20,000	군산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34,000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청년예술가 입주 지원	145,000	전주시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20,000	군산시	

경상권

<표 68> 경상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경남	계(14)	656,700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50,000	5개소 5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172,000	6개소 6명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	72,000	22명 발굴 지원
	청년 아시아미술제	75,000	대상자 85명
	통영 청년 아트페스티벌	6,200	+통영시
	도립예술단 청년 연수단원제	82,000	3명 공모
	청년 영화교육 지원	70,000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50,000	25명 내외 선발
	경상남도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	22,000	
	한여름의 할로윈파티	16,500	+거창군
	시민 문화학교(청년문화기획가 학교)운영	25,000	진주시
	청춘다락 운영(문화공간제공,체험프로그램운영)	31,000	거제시
	청년 버스킹 활동(팀당 12~50만원 지원)	20,000	창녕군
	문화마을 기획전문가 양성사업	40,000	거창군
경북	계(7)	694,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43,000	1기관당 1명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 지원사업	306,000	6개 시군,14명 참여
	경북청년예술촌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90,000	3명 공모 선정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크루	100,000	전국 공모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20,000	의성군
	2022 청년콘서트(문화공연,소통나눔행사)	15,000	영주시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그램	20,000	의성군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중부 및 제주권

<표 69> 중부 및 제주권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강원	계(1)	174,000	
	문화예술단체 청년 지원(청년문화예술인 확보)	174,000	삼척시
제주	계(4)	483,000	
	청년작가 지원사업(미술분야)	20,000	세미나,워크숍 등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스(UCLG 청년문화포럼)	100,000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275,000	
	제주청년작가전 추진(창작활동지원)	88,000	

문체부

<표 70> 문체부 청년예술 대상 지원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문체부	계(11)	89,342,000	
	문화누리카드	31,000,000	
	청춘마이크	7,250,000	
	청년 삼삼오오 인문실험	350,000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지원	1,883,000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1,322,000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4,200,000	
	예술인 창작준비금	37,800,00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654,000	
	아르코 청년예술가	3,000,000	
	문화PD	230,000	
	광고콘텐츠 창작자	653,000	

7.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17개 시·도 지역재단 및 문체부, 서울, 중앙부처

<표 71> 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표

기관명	사업명	대상 및 지원내용
충남 문화재단	생애최초창작 지원사업 (2021년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만29세 이하의 예술가(초·중·고·대학생 제외), 예술대학 및 유사학과 졸업자로 공연예술, 시각예술분야의 예술가, 공공지원금(문화예술관련 기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지원 - 개인 500만원 이내, / 단체 1천만원 이내
	신진예술창작 지원사업 (2021년 기준)	개인: 문학·시각·공연예술 장르의 만39세 이하 개인예술가를 대상으로 각 장르에서 2~3년 이내에 예술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학술행사 및 연구지원을 제외한 본인 작품에 대한 창작 및 작품활동으로 1,000만원 이내 지원 단체: 참여 인력 중 충남 주소지 예술가 참여 의무가 있으며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단체에게 우선지원을 고려하고 1,000만원 이내 지원
경기 문화재단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2021년 기준계속 시행)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평생 1회, 개인당 300만원을 200명에게 지원
부산 문화재단	청년예술가창작활동 지원 (2021년 기준계속 시행)	부산 거주자 혹은 부산 활동경력이 2년 이내인 자 중에 39세 이하 대상 (공연·시각·문학 장르) - 기초예술 분야지원 팀(개인)별2백만원~10백만원 생애첫창작활동지원 팀(개인)별2백만원~3백만원
	청년연출가작품제작 지원 (2021년 기준계속 시행)	-부산 거주자 혹은 부산 활동경력이 2년 이내인 자 중에 39세 이하 청년연출가 대상 1차지원: (쇼케이스 공연) 5명 선정 후 각 800만원 지원 2차지원: (최종공연)1차 지원 선정자 중 1명 선정후 5천만원 지원
대구 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21년 기준 계속시행)	대구광역시에 소재를 둔 만 35세 이하 혹은 최근 3년 대구 내의 활동실적이 3회 이상 예술가를 대상으로 선정 후 상금 월 80만원 지원*20~21년도 다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및교육 등의 활동지원은 불가
	대구 공연예술 분야 신진 예술가 Showcase	대구를 주소지로 둔 만 39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청년 예술가(개인·단체 모두 지원가능)를 대상으로 3팀을 선발해 차등하게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을시상금으로 지급
광주 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2021년 기준,2020년 이후로 청년예술인, 생애최초지원으로 분류)	청년예술인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이하 전문예술인 및 기획자 38명선정 후 각 400만원 지원 * 2020년도부터 최대 2회 까지만 지원가능 생애최초 지원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이하 예비 예술인으로 재단 및공공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7명선정 후 각 300만원 지원
	2021 청년예술인지원 (정기공모)	- 개인: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전문예술인 - 단체: 단체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거나 최근 3년간 2년 이상 대전에서 정규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 중 청년예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단체) -최초지원과 경력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지원유형 안에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장르 지원 문학 개인 200~500만원 / 단체 300~1200만원 시각 개인 200~700만원 / 단체 200~1200만원 공연,다원 개인 200~700만원 / 단체 200~2000만원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기관명	사업명	대상 및 지원내용
인천 문화재단	청년생애처음 지원사업 (2019년 이후 폐지)	인천에 연고를 두며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만 19세~35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프로젝트팀에게 일정 형식제한 없이 진행가능하도록 최대 300만원 지원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바로 그 지원 (2021년 기준 계속 시행)	타 지역연고에 관계 없이 만 35세 이하 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발표를 인천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우수 프로젝트 선별하여 심사위원 또는 평론가에 의한 리뷰 제공, 지역예술가로구성된 프로그래머의 사전 및 사후 맞춤형 인큐베이팅, 종합보고전 형식의 <바로 그 시장> 참여
세종시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청년예술가 육성 (2021년 기준)	공고일(2021.1.7) 이전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1982.11 이후 출생자) 예술인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장르별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800만원 이내 지원
울산 문화재단	청년예술인및 신규예술단체지원 (2021년 기준)	예술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세종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개인: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400~500만원 지원단체: 설립 3년 미만의 문화예술단체로 1천만원 이내
울산 문화재단	울산예술지원사업 1차 공모기초예술지원 (2021년 기준, 정기공모)	생애처음 청년예술 지원사업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울청 아티스트)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거주기간 무관) 만 39세 이하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대부분 3년 이내에 각 장르별 예술활동에 대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에게 500~800만원 지급
강원 문화재단	신진예술가창작활동 지원 (2021년 기준)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활동 중인 만39세 미만의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시각·공연 장르 분야에서 5년 이내의 예술활동 경력에 있는 자에게 창작지원금(월 25만원)과 직접사업비를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기간은 2년으로 두고 1차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생애최초지원 (2021년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순수 예술 활동으로 비영리적 활동을 하며 활동경력 10년 이하의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 발표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
충북 문화재단	청년예술가창작지원사업 (2021년 정기공모2차)	(연속) 2020년도 선정자 (일반) 만19세~만39세의 충북 거주 및 연고가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지급
	청년예술단체지원사업 (2021년 정기공모 2차)	만19세~만39세의 예술인(5인 이상)으로 구성된 3년 이내의 단체를 대상으로 500~700만원 지급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청년예술창작 ※전체 예산의10%의 무배정)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예술인 및 단체 (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 전원 청년 예술가로 구성) 문학: 200만원 지원 / 시각: 300만원 지원 공연: 400만원 지원 / 다원: 400만원 지원
전라남도 문화재단	청년예술가 활동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개인) 창작준비 (1년차) 1천만원 이내 지원창작발표 (2년차) 1,500만원 이내 지원

기관명	사업명	대상 및 지원내용
경북 문화재단	청년신진예술인발굴·육성지원 사업 (2021년 기준)	개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상북도이고 만49세 이하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200~500만원 지원 (만 39세 이하 지원자의 경우 가점 부여) 단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북 도내이고, 경상북도 내에서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500~1,000만원 지원(동아리, 동호회, 기획사 제외)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차세대 유망예술인 지원사업 (2021년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예술인이고 최근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공연 및 시각 전문가 장르에서 각 800만원 지원
제주 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처음발표지원 (2021년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 등록되어 단독 및 개인 발표 경험이 전무한 만 19세~만 34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가능)를 대상으로 개인 최대 400만원 지원 *2018~2020년 예술 전공 졸업(예정)자 우선고려 *비전공자 지원 가능
	청년유망예술가육성지원 (2021년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 등록 2년 이상으로 만 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 최대 1,000만원 지원 *4대보험 미가입자만 해당
	청년예술창작공간임대료지원 (2021년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등록 2년 이상으로 만 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대학생 제외)를 대상으로 개인 최대 1,000만원 지원 *4대보험 미가입자만 해당
	청년문화기획프로젝트 지원 (2021년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등록되어 만19세~만 39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단체(대학생 가능)를 대상으로 개인 최대 2,000만원 지원 *단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청년예술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단체)

8.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정책

<표 72>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예술정책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문화비전 2030의 청년 예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문화 관련 대학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2. 읍면동에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3. 농·산·어촌의 문화적 재생으로 문화예술인·문화청년의 귀촌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 조성 추진 4.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지식·창의 기반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인재 양성체 계로 '콘텐츠 원 캠퍼스' 확대 개편 5. 문화동반자사업,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사업 등 해외 예술인력 국내초청 프로그램의 심화, 국내 문화인력의 해외파견 확대 추진 등 쌍방향 예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 6. 아시아 국가 중심의 청년예술 전공자 지원사업인 한예종 AMA 장학생지원 프로그램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대륙의 개발원조 국가에 확대하여 추진 7. 실패를 응원하고 재기를 돕는 일자리 문화협력 프로젝트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새예술 정책의 청년 예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신진예술가 진입 경로 확대 2. [주거]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 지원 3.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 (Slow Arts Factory) 추진 4. 예술 투자 확대 (연극·청년작품 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 5. 예술 기반 사업 개발 및 창업 지원 6. 예술분야 매개인력 지원 확충 및 예비/청년 기획인력의 해외 축제, 공연장 등 진출 지원 추진 7. 예술을 통한 문화외교의 전략적 확대, 아시아 ODA 수원국의 청년예술인재를 한예중 국비장학생으로 선발 학·석사 과정 이수 지원
-----------------------------------	---

9.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운영흐름

<표 73> 서울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구조도

구분	창작주기		특성화 지원사업	
경력단계	예술창작지원		· 유망예술 지원사업 ※ 창작 공간에서 운영 · 공연장 상주 단체육성 지원사업	
	창작준비	창작활동지원		
	모든 예술인	진입단계 A트랙: 신진		-
		성장단계 B트랙: 유망 안정단계 C트랙: 중견		
	준비	제작 및 발표	확산유통	
예술기반지원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		※ 연구서적 및 중견작가 작품집발간 지원은 '예술기반지원' 내 포함 운영	
	연구지원 컨설팅지원	청년예술 공간지원		비평지원 아카이빙 지원 네트워킹 지원

10.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 청년예술정책

<표 74>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 청년예술정책

기관명	사업명	목적	대상	지원내용
국토교통부	행복주택(복지)	·젊은 예술인들의 정착 환경 안정을 위해 (젊은)예술인 행복주택 입주대상 포함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7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사업 대상에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재직 증명으로 인정하여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충족
한국장학재단	예술체육비전장학금(복지)	·전공분야별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육성	·국내 4년제 대학 예술 또는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에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 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 에 따름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지원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 (직전학기 성적 4.5점만점 기준 3.5이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융자(복지)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저금리대출 금융지원사업	·청년예술인 (만 39세 이하)의 경우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최소 50만원~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신청 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기간 3년, 조기상환 가능하며 상환수수료 없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창업예컨대 프로젝트(창업지원)	·'예컨대'는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대화'의 줄임말로, 가능성 있는 예술창업팀을 선발하여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및 예술창업을 활성화	·한예중 재학 및 졸업생 (5년 이내)으로 구성된 청년창업팀(3명 이상, 타 대학 지원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한예중 학생 포함)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 예술, 예술융합 총 8팀 내외 ·창업활동지원금 최대 2,000만원 ·예술창작 활성화 세미나 및 워크숍 ·스타트업 브랜드 컨설팅, 창업교육 아카데미 ·홍보·마케팅 및 회계·세무 지원 ·투자활성화 IR데모데이 및 결과 발표회 지원 ·네트워크 기관, 기업 후속연계 지원 및 홍보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기관명	사업명	목적	대상	지원내용
한국 문화예술위 원회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창작지원)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현장에 대한 진입장벽 을 해소	·만35세 이하 청년 예술인 ·문화예술진흥기금 비수혜자	·분야:창작(문학,시각예술,연극,무 용, 음악,전통예술,기획,무대예술(무 대, 조명,음향,영상,공연) 분야 ·지원:총 49명 ·조사,연구지원,최종발표 지원 등 세부지원 내용은 분야별 상이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차 세대 예술가 공모 (창작지원)	·차세대 신진예술가의 창작 및 기획역량을 높이고, 소재 확장과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지원	·만35세 이하 차세대 예술인	·분야:창작(문학,시각예술,연극,무 용, 음악,전통예술,기획,무대예술(무 대, 조명,음향,영상,공연) 분야 ·지원:총 49명 ·조사,연구지원,최종발표 지원 등 세부지원 내용은 분야별 상이
	청년예술 네트워크 구축 (해외교류 지원)	·글로벌 예술창작 및 프로 젝트 기획 환경에서 예술 분야 청년전문가간의 네 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기획 경험 제공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 및 전문인력간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국제예술교 류분야 전문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협력기반 구축	·만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전문가 3~7인 의 모임	·장르: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 악, 전통예술,다원,융·복합 분야 ·예술 및 인접 분야의 다양한 전문 가 참여 가능 ·2019년 동안 모임 구성원 협업으 로 추진되는 글로벌 예술창작 혹은 프로젝트 기획 작업 ·지원:항공료,숙박비 및 발간비,행사 진행비 ·권역별 1인당 지원금액 정액 책정
	청년예술 교류역량 강화 (해외교류 지원)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의 목표와 대상이 명확한 예 술분야 청년전문가를 대 상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국제교류 준비작업을 지 원.해외 기관 및 예술가와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준 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우수 프로젝트 발굴 의 기반을 조성	·만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분야 청년전문 가 및 단체	·장르: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 악, 전통예술 ·분야:예술가(단체),예술기획자(큐 레이터 등),엔지니어 등 ·2019년 동안 추진하는 국제예술교 류 프로젝트 준비작업 ·지원:항공료,숙박비 및 발간비,행사 진행비(최소 500만원~최대 2,000 만원)
지역문화 진흥원	문화가 있는날- 청춘마이크 (창작지원)	·학력 경력 수상실적에 관 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 춘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가 있는날' 공연(행 사) 기회 부여 및 지원을 통해 전문 문화예술가로 서의 성장발판 제공 및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 정책 확산	·만19세~만34세의 청년예술가 ·1~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팀 대상, 5인 이상도 신청가능 (5인 초과시 지원은 5인으로 한정)	·연간 5회 지원 ·팀당 1회 70만원(최소)~210만원 (최대) / 팀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 ·구성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팀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인원예 상관없이 1회 공연 당 최대 지원 액은 210만원임

11. 청년예술인 정책사업 사례 도시 (부산,인천,서울,광주.제주)

「부산 청년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목표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표 75> 부산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	청년 문화 제도적 기반 정비	· 청년문화 육성·지원 종합추진계획(2019-2023) 수립 · 청년문화 제도 정비 추진
	청년문화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년문화 허브 설립 및 운영 · 청년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청년문화 단체와 활동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청년 문화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 활동 민간 공간 지원 ·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지속 및 운영체계 개선 ·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지속 및 운영 고도화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	청년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문화단체 간 협업 지원 · 청년문화 국내 교류의 장 조성 · 청년예술가 국제 교류 지속 추진 · 지역 문화기관 연계 추진
	청년문화 향유 기반 확대	· 청년문화 페스티벌 개최 · 청년문화 예술시장 활성화 · 청년문화 매체 발간
	청년문화 담론의 사회적 확산	·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지속 추진 및 운영 개선 · 청년 지역사회활동 지원 · 청년문화 연구 조사
청년문화 역량 강화	청년 문화 콘텐츠 다원화	· 청년 기초예술가 지원 · 실험적 청년문화활동 지원 · 장르·세대·기술 융·복합 문화예술 지원
	청년 문화콘텐츠 고도화	· 활동 단계별 사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특화 및 혁신성장 청년문화 특구 지정 추진 · 지원 사업 심사 및 평가 시스템 재편
	청년문화 인적 역량 고도화	· 청년문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설 · 창업,창직 역량강화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부산문화재단 「2020년도 청년문화육성지원 기본계획」(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진과제	예산
I.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1.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 청년문화 관련 커뮤니티 운영 지원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팀 - 최대 1천만원(월 100만원x10개월)/15개팀 내외 지원	150
	2.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분야 청년예술가 지원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청년예술가 - 기초예술 분야 지원(1억5천만원, 거주지가 부산이 아닐 경우 최근 2년 내 부산 활동 증빙 필요) -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5천만원)	200
	3.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 청년연출가의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청년연출가 - 쇼케이스: 5개팀, 7백만원 - 최종: 1등 5천만원, 2등 3천만원 - 최우수연출가 다년도(2년) 지원	130
	4. 아트마켓 사업	· 아트상품 제작지원(65백만원) · 아트페어 개최(9.10~27.(예정))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청년예술가	120
II.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	5. 청년문화 전문인력양성	· 정규과정: 실무중심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특별강의: 인큐베이팅 대상을 세분화하여 전문 아카데미 운영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청년	80
III.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6. 청년예술가 국제 교류	· 한아세안 특별전시 및 워크숍 · 방콕 BACC 협업 전시, 공연 · 국제적 이슈가 있는 축제, 도시에서 공연행사 진행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으로 되어있는 청년예술가	120
	7. 청년문화 박람회	· 청년문화콘텐츠 및 단체 소개의 장 마련 (공연, 전시, 부대프로그램) - 부산지역 청년예술가 및 시민	120
IV.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지원	8. 사상인디 스테이션 운영	· 서부산권 청년문화 거점 공간 역할 수행 - 인디위홀: 인디뮤지션 교류공연 - 청년BBM: 청년문화 교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 - B-side전시: 서브컬처를 재조명한 기획전시 - 메이드인 사상: 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시비 130 구비 78
	9. 민락인디 트레이닝	· 인디문화 관련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 지원	150
V. 10. 청년문화홍보		· 청년문화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대 시민 홍보 (청년센터운영 Creator 양성, 결과공유회)	100

인천시 청년예술인 추진전략 과제

<표 76>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도	청년문화조사·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년문화(창작자·향유자)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청년문화 조사·연구 · 지역 내 청년문화활동 지원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음카드 연계 청년문화할인제 운영 - 청년문화활동 포인트제 운영 · 청년주도 청년문화정책 추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네트워크·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 - 청년문화정책 아이디어 발굴 대회 운영
시설	청년 문화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유휴공간 재생 청년창작공간 조성 - 생활권별 청년 공유문화공간 조성 · 관내 공연장 및 전시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음악창작소 내 전문공연장 조성 - 전시공간 및 아트상품 판매공간 조성 · 인천 예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전문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예술전공 대학생 진로교육 제공
인력	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단체) 종합 지원(창작·발표·역량 강화) -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운영 · 청년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및 지원 - 청년문화전문인력 문화일자리 지원 · 청년문화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내 청년문화전담부서 설치 - 청년문화 코디네이터 배치·운영
사업	청년 맞춤형 문화사업 발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맞춤형 문화사업 발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년 문화다양성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 청년 생활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지원 - 청년 문화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 문화예술 향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청년문화주간·청년문화마켓 운영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내 청년문화 정책 및 사업 전략 세부사업

<표 77>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전략	세부사업
1. 설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청년활동지원(현 청년수당) - 사업목적: 청년의 사회참여 제고 및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 사업기간: 2016~2020년(5개년 계획, 연차별 대상 확대) - 지원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29세 청년 3,000여명 · 지원내용: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이내 · 활동유형: 세대 간 협력 모델, 지역협력 모델, 도시혁신 모델, 자기주도형 모델 등
2.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무용, 음악 등 22건에 총 약 3억원의 창작지원금 지급 - 서울무용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장비, 멘토링, 홍보활동 지원 ·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진로 희망자 대상 이론 및 실습 통한 전문 노하우 전수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과정 이수를 통해 관련 분야 취업역량 배양 - 문화예술기획, 공연예술 분야 진로 희망자에 대한 예술단 정기·연계공연 기획·제작 전 과정 지원
3. 놀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종합활동공간 청년청 설치·운영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운영 - 지역청년공간 활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 생태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환경 개선, 청년활동 활성화 및 생태계 지원, 청년활동의 확장·지속을 위한 자원 연계,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청년의 일경험 지원 및 청년정책 혁신사례 발굴 육성

「2017~2021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청년문화 정책 및 사업 핵심과제 세부사업

<표 78>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분야	세부사업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챔피언스 필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대형 뮤지컬 공연을 무료로 생중계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버스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통한 버스킹 출연인력 선정 및 버스킹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운영 · 컬처트럭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드 트럭, 갤러리 트럭 등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문화행사를 게릴라 형태로 개최 ·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의 발표무대를 제공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개최
청년문화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유통 청년 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거리에 청년미술상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 청년예술 유통활성화와 예술의 거리 활성화 도모 ·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예비문화기획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에서 참여대상의 폭을 확장시켜(신진기획자) 진행 ·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쿼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할당 ·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청년 인디문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의 독특한 문화를 지원하여 창의적인 문화 생산 세대로 육성하고 광주 시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확보 - 인디 분야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유치 통한 청년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KT&G의 상상마당을 유치하여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 · 청년 문화예술 카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감상·소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 카페를 대상으로 문화행사비 지원 · 청년문화의집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 추진했던 청년문화의집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문화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진행 - 민간 운영 공간 대상 공간 임대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청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센터, 공공문화시설, 공공 유휴공간 중에서 청년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이 가능한 공간을 파악하여 제공

2020년 광주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문화정책

분야	추진과제	내용	추진부서
필요로운 경제 청년	1-2-2 지역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 광주문화재단을 통한 지역단체 및 구직자 모집 선정 · 주요내용: 지역단체 및 구직자에게 인건비 지원 - 20명 / 24개월 / 월 200만원 지원 · 사업비: 332백만원(국 166, 시 166) 	광주 문화재단
	1-3-10. 지역주도형 청년비엔날레 인력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사업규모: 11명 · 사업비: 226백만원(국비 113 시비 113) · 사업내용 - 광주 비엔날레 준비기간에 투입, 비엔날레 작품 전시를 위한 기획, 작품 설치 참여, 전시결과 평가 참여 등 	(재)광주 비엔날레
품격 있는 문화 청년	3-1. 청년문화 생태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다양한 형태의 분과모임 운영, 워크숍, 결과공유회 등 - 전국 네트워크 행사 참여 지원 · 사업비: 50백만원(시비) 	광주 문화재단
	3-2. 2020 청년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0. 9월(예정) · 장소: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예정) · 주요내용: 공연행사, 전시/체험, 청년마켓, 연계행사 등 · 사업비: 200백만원(시비) 	청년 청소년과
	3-3.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출판분야 / 추진방법: 공모 · 주요내용: 신진 및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및 기획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예술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제공 · 사업비: 120백만원(시비) 	광주 문화재단
	3-4.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 보조단체 공모 선정 후 양성학교 프로그램 진행 · 주요내용: 문화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30백만원 	청년 청소년과
	3-5.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거주 청년예술인 ·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12 · 사업내용: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비: 58.83백만원(시비) * '19년 예산 : 71백만원 	교육창작 지원과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표 79> 제주문화재단 청년예술정책

구분	내용
지원 사업	청년예술 처음발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단독/개인발표를 갖지 않은 예술가와 기획자의 창작발표 기회 마련 · 지원내용: 개인(1인) 최대지원금 4백만원(별도 정산 없음) · 지원자격: 만 19~34세 청년예술가 최대 5인
	청년 유망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경쟁력 있는 지역청년예술인 발굴·육성지원 · 지원내용: 개인(1인) 최대지원금 10백만원(별도 정산 없음) · 지원자격: 만 19~39세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최대 5인
	청년예술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창작실 및 연습실 임대료 지원 통한 청년예술가의 창작의욕 고취 · 지원내용: 개인(1인) 최대지원금 5백만원(별도 정산 없음) · 지원자격: 만 19~39세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최대 6인 내외
	청년문화 기획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청년문화예술인 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내용: 개인(1인) 및 단체 최대지원금 20백만원 · 지원자격: 만 19~39세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최대 5인 내외(단체 포함)
기획 사업	청년문화 아지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참여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과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 및 예산 지원 · 지원내용: 진입기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의 역량 강화·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와 프로그램 지원. 주제별 우수 2팀 선정하여 400만원 상당의 프로젝트 후속지원, 프로젝트 종료 후 총 3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19년 선정 아지트 팀 A, B의 프로젝트 실행 - 하반기: 아지트 팀 모집 및 운영 · 지원자격: 만 19~29세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청년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콘텐츠 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대중에게 콘텐츠를 알리고, 자생적 재원 조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원내용: 도내 청년예술가 작품활동 및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과정을 콘텐츠(글, 사진, 영상 등)로 제작하여 온라인유통.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서비스에 노출하여 작가 및 작품, 프로젝트에 관한 소셜 펀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컨설턴트 1:1 매칭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등록 상품 촬영 지원, 온라인 플랫폼 등록 후 홍보 마케팅 지원(유료광고), 펀딩 관련 교육 진행, 배송지 비원, 프로젝트 창작자 간 네트워킹, 오픈스토리 웹 디자인 제작 및 수수료 지원(한국관광공사 연계) · 지원자격: 문화예술과 관련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만 19~39세 청년(개인 및 단체)
	아트노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공급자와 문화예술 소비자 사이에 소통의 역할 · 지원내용: 아티스트 관련 스토리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전문가/파트너 매개 서비스 기능 강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6장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설문(인터뷰) 조사 결과도출, 발전방향 등 제언

1. 조사연구의 필요성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 미국 뉴욕대학 교수, 경제학자)은 『공연예술의 딜레마(The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용질병(cost disease)'을 말하였는데, 이는 공연예술 분야는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고 비용만 체증하여 결국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질병'에 따른 민간실패 이론에 의하면 예술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그들의 기량으로 작품이 제작되기 때문에 기계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기술진보와 관계없이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200년 전이나, 21세기인 현재나 동일한 연주인원과 동일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제작비는 증가한다. 이는 출연료 등 인건비, 관련 세금이 200년 전보다 증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에서 수익성에 따른 비용 절감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바로 수익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생산 효율에 맞추어져 서는 곤란하다.

특히 코로나 19이후 문화예술분야는 기본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을 만큼 문화예술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기성예술인에 비해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들의 위협받는 기본 생계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예술인 실태조사>와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표 80> 예술인 실태조사

2021 예술인 실태조사	1인 예술활동 총수입(2017년/ 1,281만원) → 2021년 695만원) / 586만원 45.7% 감소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예술활동과 생계유지> " 인컴(수입)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제일 이상적인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송곳 그래프잖아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저는 제 반려자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결혼을 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상위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웹툰 분야 심층면접 사례 >

* 연간 예술활동 총 수입 1,200만원 미만이 2021년(86.6%), 2017년(72.7% 코로나 이전)

최근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서 이러한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위축에 대한 대응과 그 해결 방안을 두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고 청년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예술환경에 따라 이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예술인 대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기반과 트렌드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현장에서의 청년예술인의 정확한 예술활동 실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인 예술활동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년예술인의 정착과 양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서 활용, 청년 지원 대상이 바라는 적격한 지원 정책 수립과 단계별 맞춤형 사업 시행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충남문화재단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청년예술인 실태조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며, 향후에도 충남예술인 실태조사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연구내용의 요약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충남청년예술인) 한국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 충남청년예술인 등록인원은 1,086명으로 파악되나, <표37>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서 등록자의 응답율이 27.1%것을 감안하면 충남청년예술인은 약 4,007명으로 추정

(표본수) 본 조사에서는 약 4,007명의 약 11.68%인 468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서베이 설문조사와 함께 예술 분야 별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

(심층인터뷰) 예술인 심층 인터뷰의 테마 구성은 1)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2)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3)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4)예술대학 교육과정, 5)지역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등을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조사.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을 첨부.

(지원사업)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재단에서는 창작(자)지원, 활동지원, 창작기반지원, 창업지원, 교육 인력양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해외교류 사업을, 매월 지급하는 활동지원사업은 부산, 대구, 강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은 차세대 아티스타 연차사업을 진행 (*<4장 타 시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사례 조사 및 분석>)

(조직운영)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단은 일반적으로 3개 본부 6개팀, 문화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이점은 인천과 부산문화재단이 청년문화팀을, 서울문화재단이 청년예술청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표71>지역문화재단 등 국내 공공기관 청년예술인 사업현황)

(사업예산) 충남문화재단은 광역단체 중 8개 사업에 6.37억 원으로 경기(9.81), 경북(6.94), 경남(6.56) 다음으로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이 14개 사업에 29.8억 원이며, 뒤를 이어 부산이 18개 사업에 29.3억 원. 특이사항은 부산과 인천은 청년지원사업 전담조직으로 청년문화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표64> 다른시도별 문화예술대상 예산현황)

<표 81> 지원사업 예산

(사업수/ 단위: 억 원)

- 광역시: 광주 11/ 11.4, 대구 12/ 11.1, 대전 9/ 12.0, 울산 8/ 7.8
- 광역단체: 전북 8/ 5.3, 강원 1/ 1.7, 충북 2/ 2.8, 전남 5/ 2.6
- 특별자치시(세종 3/ 5.1), 특별자치도(제주 4/ 4.8)

3.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지정학적 위치**) 충남지역 청년예술인의 활동여건 및 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지역은 입지적으로 국토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타 지역, 타 장르 예술활동과 네트워크 협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창작활동 거점이 열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환경의 제약이 따르면 좋은 인적 자원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표7-1>충남에서 활동하는 이유 · <표7-2>충남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 참조)

(**활동영역**) 청년예술인의 활동영역의 제약은 청년예술인이 졸업 후 활동 거주지 근접한 친연고지를 선호하는 것이 눈에 띄며, 한편, 서울 및 광역시 등 타지 출신대학교 응답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충남지역 서울 및 광역 단위 청년예술인의 활동영역과 비교적 인접지역이며, 관련 분야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 지원사업 수혜 등 창작 환경 조성, 정착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예술인 생활·복지**) 지역 내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만족도는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창작 활동 측면,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환경 및 문화향유 시장 등 전반적 문화인프라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년예술인의 소득 감소는 전업 예술인 비율이 낮아지면서, 겸업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청년예술인의 부채 원인의 경우, 주거비(26.3%) 및 생활비(15.3%)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청년예술인 지원의 경우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은 거주, 생활 안정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덧붙여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 응답에서도 생계문제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지역의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소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 <표15>수입에 대한 만족도 · <표26>예술가 활동시 부족비용 총당경로 · <표17>부채(빚)여부 <표17-1>부채(빚) 주 원인 · <표18>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 · <표18-1>예술 경력단절 경험 이유 참조)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부 응답에서도 '생계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지역의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소외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청년예술인 정서·건강**) 창작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불안정한 창작외적 환경으로 인해 소외, 고독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감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기성의 예술현장 진입과 함께 정착 과정에서의 업무 강도를 체감하면서 그와 함께 예술인 고용 보수 지급에서의 낮은 소득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 정서적 불안정 상태의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의 지속과 지역정착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예술인 대상의 정책 기획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심리정서 치유상담센터 운용 등과 같은 공공 문화서비스 정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표 19>정서상태 빈도 · <표22>현재건강상태, · <표23>최근1년 건강 악화로 작업 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 <표24>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포기 경험 여부 · <표24-1>병의원 미방문, 중도 치료포기 경험 이유 참조 · <표20>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요인 참조)

(**청년예술인의 내·외적환경**) 스트레스 요인 중에 예술계 관행에 따른 불합리한 업무처리, 예술인 부당대우, 성폭력, 여성차별등과 같은 인권침해 등의 경험 역시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과 정착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나타난다. 예술인 부당대우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폭력 피해신고 상담지

원센터'운영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체계적인 이용을 돕기 위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표26>부당대우 경험여부 ·<표27>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표29>예술계의 성폭력 및 여성 차별 수준 ·<표30>예술계 성폭력 방지방안·<표25>예술인 신문고 인지 여부·<표31>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인지여부)

(예술정책 및 예술인복지) 정책 만족도 수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원사업 관심도나 수혜 및 참여 경험은 장르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비중이 낮은 것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와 연계되어 공공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자격에 대한 평가 미달, 지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지원 혜택에서 지역 청년예술인의 상대적 소외도 엿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청년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성화 등과 같은 청년예술인 대상 섬세한 예술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35>충청남도 예술정책 및 지원만족도·<표32>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표32-1>예술활동증명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33>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표34-1>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책 방향 선호도를 살펴본다면, 공통적으로 생활안정지원과 예술창작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생활안정과 복지 문제가 우선하며, 그 기반 아래서 예술창작지원 등 예술인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원예술기관은 중장기적 예술인 창작권, 주거권, 경제권, 건강권 등이 보장되는 정책 마련과 함께 청년예술인의 독립, 생존을 위한 종합적 육성계획이 요구된다. (*<표36>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중점사업 ·<표37>충청남도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 정책)

(예술활동 창작공간)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에 대한 응답자 반응 분포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공공보다 개인 및 사설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거점 창작공간, 발표공간 및 예술활동 교류를 위한 지역문화플랫폼, 레지던시 공간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도 내 창작 및 발표, 교류 공간 부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이 요청된다. (*<표38>주 창작활동 장소 ·<표39>창작공간의 필요성·<표40>공동창작공간 이용의향 ·<표41>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에 대한 의견 ·<표42>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에 대한 의견)

(온/오프라인 예술활동) 청년예술인의 온/오프라인 예술활동지 응답에서 온라인 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세대 유형이 오프라인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예술창작 및 교육 활동에 친숙하고, 코로나19 등 사회환경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강화된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 활동에서 온라인 매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술인 개인이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표49>온·오프라인 주 예술활동지·<표45>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 ·<표45-1>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표44> 온라인 활동지)

4. 정책제언 및 시사점

정책제언 방향을 예술활동지원분야, 문화공간분야, 청년정책분야, 교육사업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예술활동분야

(지원사업) 충남문화재단의 청년지원사업은 2개 사업으로 생애최초지원(29세까지)과 신진예술창작지원으로 322백만원이며, 21년 지원대상자 86인이 선정되었다. '22. 7월 <표4 현재활동 예술분야>도내 청년은 한국복지재단 등록인 기준 1,086인, 12개 예술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표 82> 청년예술인 대비 지원사업수혜비율

청년사업선정 수	등록청년 수	혜택비율	추정인원
2개 사업 86명	1,086	7.92%	4,007/2.15%

* 예술활동증명신청여부 충남 실태조사 27.1%/ 서울시 실태조사 31%/ 대전시 실태조사 27.4%

충남도가 국무총리조정실에 제출한 청년예술인지원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3> 충남도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표

- 충남도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출처, 국무총리조정실 청년담당관실)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고
예산액	322백만원	338	355	372	390	
대상자 수	86(90)명	94	98	102	106	10%안됨
평균지원액	4백만원	4	4	4	4	

이번 청년예술인 실태조사(표37 충남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사업)1위 15.9%가 예술사업지원이었음을 반영하여 청년예술인의 진입시기에 소액다건으로 다양한 장르에 최소한 향후 25~30%를 목표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청년에게 획기적인 청년예술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84> 충남도 향후 10년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추진계획표(안)

- 충남도 향후 10년간 추진계획(안) / 청년예술인 25~30% 수혜 실행계획

구분	23-24년	25-26년	27-28년	29-30년	31-32년	비고
예산액	436백만원	652	869	1086	1,303	
대상자 수	109명	163	217	272	326	
비율(장르)	10%(7)	15%(8)	20%(9)	25%(10)	30%(12)	

* 청년예술인 1,086명 기준으로 증가시에 수혜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음

(예술활동장소) 충남도내 활동과 활동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표7과 표7-1에서 엿볼 수 있다. 활동하는 이유는 고향(34.7%)이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24.8%)이라는 주로 정주여건때문이며,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예술활동지원, 예술활동공간, 예술소비, 예술인과 교류 등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본질 때문에 도내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의 향후 10년간의 예술활동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표 85> 충남도를 떠나려는 청년예술인 사유
- 충남 이외 지역에서 활동 이유 <표7-2> 참조

항목	빈도	비율(%)
예술활동지원	27	17.1
예술활동공간	34	21.5
일자리가 많아서	20	12.7
예술인과 교류	26	16.5
예술소비 수요	14	8.9

(예술활동단계) 예술활동의 단계를 나타내는 작품발표횟수(표8) 한번도 발표하지 않는 11.3%, 1~5회가 53%, 6~10회가 19.9%, 11~15회 이상은 7.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예술인으로 진입초기에는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표출되나 이후 지원사업기준 청년연령이 생애최초는 29세, 신진은 39세로 연령제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년이라는 청년시기에 다양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통해 참여일수와 발표횟수가 증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문화공간인프라분야

(문화인프라) 문화인프라와 작품발표기회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표42)충청남도 내 창작공간에 대한 의견 부족하다는 응답이 34.5%, (표43)충청남도 내 발표공간에 대한 의견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35.7%를 나타내고 있다. (표38)주 활동장소로 개인 작업실, 자택이 87.5%로 심각한 상황이다. (표39) 창작공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3.6%가 필요하며 (표40)에서는 공동창작공간 이용의향에 64%가 이용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15시, 군의 문화환경지표조사를 통한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문화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서산문화재단 시행하고 있는 작은 문화센터가 공실없이 운영되어 추가로 다른 장소에 문화센터를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현황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전시실), 박물관도 필요하지만,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문화시설인 작업실과 창작실이 도시규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표 86> 충남도 도시별 규모에 따른 문화인프라 확충계획

- 도시 규모에 따른 문화인프라 확충계획(안)

구분	전용공연장	지역특화 인프라	문화센터
도시별	천안, 아산시	당진, 서산시	동네 작은 공간
문화시설	음악전용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전통공연장
창작실	시범구역(중소도시, 군지역 운영)		
작업실	시범구역(중소도시, 군지역 운영)		
기 타	세어하우스(장르별, 남·녀 구분), 지역시범지역(주택가 리모델링)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설문(인터뷰) 조사 결과도출, 발전방향 등 제언

3. 예술정책 예술인 복지정책분야

(예술인 등록) <표32>예술인 등록율이 27.1%임에 비해서 <표32-1>예술활동증명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정보를 알지 못해서 등록하지 않은 32.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설문항목 중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별로 도움이 안되서 등 부정적인 질문의 항목을 합친 응답비율이 50.3%로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까지 포함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예술인 등록제도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예술인의 접근이 쉬운 다양한 온라인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하고 예비청년층인 예술관련 대학과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 청년예술인지원사업에 미참여 이유를 묻는 <표34-1>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신청 않았다는 응답율이 무려 41.7%로나 되며,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16.8% 실효성이 없어서 14.3%,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13.7%로 홍보와 더불어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술인 역점정책) 충남도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정책으로 <표37>예술가(단체)을 위한 경제적지원이 15.9%, 예술공간시설 확충 11.0%, 예술진흥 정부기관 기능확대 10.9%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35>의 충남도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비율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9%, 보통이다 40.9%,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이 18.2%이다.

충남도가 청년예술인 정책에 지원정책확대, 문화공간인프라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원제도) 타 지역의 사례에서 청년정책을 선행한 도시를 살펴보면 부산과 인천 그리고 서울, 광주, 제주 등이 있는데 청년문화예술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87> 타 시도 청년예술인 조직운영

구분	조직	주요내용	비고
부산	· 신설: 2015.2 · 조직: 청년문화팀 (팀장외 8명)	· 신설사유: 청년사업 핀셋지원 · 운영공간: 청년팀 근무지를 현장 · 특징: 팀을 청년층으로 구성	T/F로 운영 1년 후 정 규조직화
인천	· 신설: 2022.2 · 조직: 청년문화팀 (팀장외 3명)	· 신설사유: 청년사업 집중지원 · 운영공간: 청년팀 근무지를 현장 · 특징: 팀을 청년층으로 구성	기존예산 외 향후 20억 5년간 100 억 원 지원
서울	· 신설: 2020.11 · 조직: 청년예술청 (2개팀 13명)	· 신설사유: 최고은 작가 작고 · 특징: 예술창작본부 소속 청년예술팀, 예술청팀 운영	22.7에 청년청을 기구 개편 본부소속으로 변 경

4. 교육정책분야

(온라인 예술활동 교육) 표45-1)온라인 기초교육,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1인 콘텐츠 등의 필요성을 응답한 비율이 71.5%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분야의 교육이 홍보성 매체로 기초분야로 중요하나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발 앞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답 비율은 낮지만 숨고, 아이디어스 잘하는 법, NFT, 메타버스 등 홍보차원을 넘어 콘텐츠문화를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분야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앞서가는 정책시도가 필요하다.

(예비 청년예술인의 진로 및 취업관련 교육) <표53>설문조사에서 취업에 관련된 필요과목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인턴십(기획,제작)72.5%, 디지털마케팅(SNS, 커뮤니티,메타버스, NFT)64.7% 공연,전시 기획제작 45.1% 등의 순서이다. 이는 충남도내의 예술관련 대학과 협력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인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사업과 연계하여 개설과목이나,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청년커뮤니티 등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또한, <그림9>예비청년예술인의 졸업 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살펴보면 졸업 후 충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서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74.5%로 10명중 7명 이상이 충남을 떠나서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현상은 충남도의 청년예술인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통계치이다. 충남도를 떠나서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이유를 <그림10>에서 살펴보면 인프라 격차 52.6%, 인적네트워크 교류 15.6%, 예술적성장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10.5%로 정주여건보다 예술적발전에 관한 항목이라는 지표라는 점이 청년예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5. 충남청년예술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충남도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실태는 초기 단계(생애최초, 신진예술가, 기획자 양성)수준이며 중요한 관점은 앞서 청년예술인 지원전담부서 사업 등을 시행한 부산, 인천 등 다른 시는 문화지역이 단일화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비교적 원활하다. 하지만, 충남도와 같이 청양군 인구 3만부터 수도권 영향을 받는 천안 65만 도시를 함께 품고 있어 시·군간의 문화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환경을 지니고 있다.

<표 88> 「청마지」목표달성을 위한 2030 연도별 로드맵

목표(년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인프라 구축기 (22~24)	청년 문화 제도적 기반 정비	· 청년문화 육성·지원 종합추진계획(2022-2023) 수립 · 청년문화 제도 정비 추진 · 청년문화예술 10년간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수립
	청년문화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년문화지원팀 등 운영전담기구 설치 · 청년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별 문화환경지표조사 · 청년문화 단체와 활동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생태계 조성기 (25~27)	청년 문화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 거점 전문 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 활동 세어하우스 등 민간 공간 지원 · 지역별(15개 시군) 차별화, 특성화된 인프라 구축 · 기초문화재단 중심의 운영 체계 지원 및 운영
	청년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 광역 및 지역별 청년위원회 운영 · 청년예술 장르별 우수도시와 국내 교류의 장 조성 · 청년예비예술인 예술대학과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 문화기관 연계 추진
	청년문화 향유 기반 활성화	· 청년예술의 장르별 페스티벌 개최 · 청년예술시장과 기성예술인과 교류 활성화 · 청년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타 장르와의 교류 확대
글로벌 강화기 (28~30)	청년문화 담론의 사회적 확산	· 청년위원회 네트워크 지속 추진 및 운영 · 청년 지역사회활동 지원 강화 · 청년예술실태 구간별 생태계 연구 조사
	청년 문화예술 다양화	· 청년예술인의 기초예술와 응용예술(문화산업)의 균형지원 · 창의적, 실험적 청년예술활동 지원 확대 · 장르별·세대간·융복합 예술 지원 활성화
	청년 문화예술 특성화	· 예술활동의 단계별 사업 기초, 심화 등 지원체계 구축 · 지역간 편차 극복을 위한 시범 특구 지정 운영 · 진입장벽낮추고 과정중시형 평가 시스템 재편
	청년문화 역량 강화	· 지역청년예술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다변화 · 지역청년예술인의 창업, 창직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청년예술인의 문화사업 쿼터 및 할인제 등

참고문헌

- 서울연구원. 2019. 「서울시 청년예술인실태 및 지원사업 혁신방안 연구」
- 인천연구원. 2020.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울산연구원. 2020.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정주하. 2021. 「청년예술인 지원정책과 예술활동지속의 관계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김정엽. 2022. 「예술지원정책으로서 청년예술 지원정책 바라보기」
- 충남문화재단. 2020. 「충남도 예술인 실태조사」
- 부산문화재단.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 광주광역시. 2015. 「광주청년 실태조사」
- 성남시. 2017. 「청년자원정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대전문화재단.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
- 경기문화재단.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전국예술인 실태조사」
- 김선애, 강주희. 2015. 「청년일자리 실태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
- 김지혜. 2021. 「부산지역의 청년문화와 전통예술 지원정책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2022

충남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부록
설문지, 면담지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

- * 본 조사는 통계법(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문의 :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위원 이영근 (yk0423@naver.com)
-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8일 ~6월 4일
- * 조사 대상 : 충청남도내 청년 예술인 (만 39세 이하)

I. 예술활동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합니다.

- 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음악(양악, 클래식) 국악분야 대중음악
- 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만화(웹툰 포함) 기타

현재 주요 예술활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
-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등)
- 예술기획자(큐레이터, 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
-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
-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 기타

귀하의 예술 활동 경력을 체크해 주세요.

- 예술 활동 전체 경력을 체크해 주세요. 1년 미만 1~3년 4~9년 10년 이상
- 충남지역 내 활동경력 체크 해 주세요. 1년 미만 1~3년 4~9년 10년 이상

귀하는 어느 지역의 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습니까?

- 충남지역 서울, 광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기타

귀하의 예술창작활동 수행 지역은 어디입니까?

- 충남 충남 외 인접지역 서울 외 광역도시 서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합니다.

- 활동지역이 충청남도가 아닙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 데뷔(첫활동)한 곳이라서 집값이 저렴해서
- 가족이 살고 있어서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 다른 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기타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에서만 활동하시는 경우 1) 체크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 주요 활동지역이 충청남도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 데취(첫활동)한 곳이라서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일자리가 많아서
- 다른 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 기타

주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1년간 2021.5.1.~2022.4.30)

- 0회 1~5회 6~10회 11~15회 16회 이상

주 활동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일수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1년간 2021.5.1.~2022.4.30)

- 없음 30일 미만 30~60일 미만 60~90일 미만 90일 이상 기타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예술활동 관련 도움(정보취득, 일자리기회, 사회관계망 형성)을 받는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3개 선택해 주세요.

- 관련 협회/협회회 /연대/노조 등을 통해 선후배/교수 등 학교 관계망을 통해
-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 다른 예술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 정부/공공기관 등의 소개를 통해 신문/잡지/인터넷 등 매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 예술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통해(SNS 등)
- 기타

국가 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있음 없음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주로 어느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개만 골라주세요.

- 학교 평생학습기관
- 공공문화향유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청소년, 복지기관 문화원, 문화의 집
- 유관기관(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기타

II. 생활·복지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혼자 (1인가구) 독립된 가정 (본인+배우자/자녀)
- 부모와 생활 (본인+부모) 동료와 생활 (본인+동료)
- 기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작업실에 부속된 방
- 일정한 거처 없음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기타

귀하의 수입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술창작 활동 측면 매우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충분
- 생계 및 생활(경제)측면 매우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충분

귀하의 수입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할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로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일을 통한 수입
-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해 수입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
- 기타

귀하의 수입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할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로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 일을 통한 수입
-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해 수입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
- 기타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부채 없다 부채 있다- 가족의 부채
- 부채 있다- 교육비(본인) 부채 있다- 창업/사업비
- 부채 있다- 주거비 부채 있다- 의료비
- 부채 있다-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부채 있다- 차량 구입비
- 부채 있다- 육아/자녀교육비 기타

예술계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무직 상태에 있었던 경험(예술 경력 단절)이 있습니까? 경력단절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사례 기준으로 응답)

-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없다 학업으로 인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있다
- 출산/육아로 인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있다 건강문제로 인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있다
-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 있다 기타

III. 정서·건강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비교적 잘 지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상당히 우울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마음이 슬펐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행정 및 서류처리 등의 업무량 과다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 |
| <input type="checkbox"/> 감정노동 스트레스 | <input type="checkbox"/>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 |
| <input type="checkbox"/> 업무상 재해 위험 | <input type="checkbox"/> 일·가정양립문제(자녀 보육 및 교육, 가사 등) |
| <input type="checkbox"/> 조직문화 적응의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
| <input type="checkbox"/> 역량개발의 기회부족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예술가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만족 |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
| 예술가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만족 |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만족 | <input type="checkbox"/> 매우만족 |

귀하는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예술산업·조직 내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교육·훈련·연수의 기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창작활동 지원 수혜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 배분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는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충남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을 알고 있으십니까?

-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IV. 예술정책·예술인복지정책

귀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습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
- 아니요,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 아니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 아니요,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 아니요,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 아니요,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 기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2021.5.1. ~ 2022.4.30.)

- | | | | |
|-------------------------|------------------------------------|---------------------------------------|--------------------------------|
|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공공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민간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여 지원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했으나 지원 못받음 | <input type="checkbox"/> 신청 안함 |

충청남도의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
|------------------|------------------------------------|-------------------------------------|-------------------------------|------------------------------|---------------------------------|
|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은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충청남도에서 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골라주세요.

-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예술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골라 주세요.

기타는 자세히 적어주세요.

-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예술진흥 관련 정부 기관의 기능확대
- 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
-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
- 작품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 전문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국민의 예술교육 확대 및 교육제도 개선
-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 다른 국가와의 교류 및 홍보확대
- 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 예술활동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 기타

창작활동을 주로 어디서 하십니까?

- 나의 작업실
- 자택
- 공동 창작공간
- 지인 작업실, 카페, 도서관, 학교 등 기타 공간

공동 창작공간 제공자(기관)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기타 작업실 어디에서 작업하십니까? 장소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귀하께서는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창작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없다
- 필요없다
- 보통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에 공동 창작공간을 마련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이용의향이 전혀 없다
- 없다
- 보통
- 높다
- 이용의향이 매우 높다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에 창작공간(창작/연습/집필공간)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십니까?

-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 보통
- 풍족하다
- 매우 풍족하다

귀하께서는 충청남도 내에서의 발표공간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십니까?

- 매우 부족하다
- 부족하다
- 보통
- 풍족하다
- 매우 풍족하다

설문지, 면담지

귀하의 예술 활동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는 방식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 개인 단독으로 활동
- 예술인 단체나 협회에 소속 되어 활동
- 다른 예술인과 팀 형태로 협업하여 활동
- 회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어 활동

귀하의 예술 활동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온라인 활동 : 유튜브, 인스타, 아이디어스, 숨고, 클래스 101, NFT, 온라인 교육 등 그 외 기타 온라인 활동

- 온라인으로 활동
- 오프라인으로 활동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동
- 오프라인 활동하고 있지만 온라인 활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

[온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유튜브
- SNS (블로그, 인스타, 밴드 외)
- 숨고, 아이디어스
-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 메타버스(제페토, 이프랜드 외)
- 온라인 교육 사이트(클래스101, 소모임, 숨씨당, 프립 외)
- 전자책자 발행
- 기타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 아니요

귀하의 예술 활동을 온라인에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온라인 기초 교육
-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교육
- 1인 콘텐츠 (유튜브, 교육 콘텐츠 만들기)
- SNS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활성화 교육
- 숨고, 아이디어스 잘 하는 법
- 전자책자 발행
-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 메타버스 아이템, 빌드잇 발행
- 기타

V. 개인 관련 사항

성별

여성 남성

연령

20대 미만 20대 30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남도 이외 지역

전공분야(예술분야 장르) 졸업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해주세요.

졸업한 부분 모두 체크해주세요.

초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중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대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석사졸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박사수료 이상	<input type="checkbox"/> 초졸	<input type="checkbox"/> 타 예술분야전공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주 예술 분야전공

* 본 조사는 통계법(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 된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VI.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성명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이메일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충청남도 청년 예비 예술인 실태조사

* 본 조사는 통계법(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문의 :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위원 이영근 (yk0423@naver.com)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5일 ~ 6월 4일

I. 학업 및 진로

귀하는 한 학기(18학점)를 기준으로 전공과 직접 관련된 교과목(전공 실기 및 전공 필수 이론 등)을 몇 학점 수강하십니까? 숫자만 기입해 주세요. ()학점/ 18학점 ※18학점 이상인 경우도 기입

()

귀하는 재학 중에 예술관련 실용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 예술관련 응용교과목, 기획, 예술경영, 마케팅 등의 내용이 추가 되는 교과목

예 아니오

예술관련 실용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귀하의 대학 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도움되지 않았다 보통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예술관련 실용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귀하의 대학 과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교과목이 없어서(교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아 보여서 졸업요건에 맞지 않아서(취득학점 초과 등)

교과목 내용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전공 교과목 시간표와 맞지 않아서 등)

실용성이 없어 보여서 기타

귀하는 취업 및 향후 진로선택을 위해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술관련 응용교과목, 기획, 예술경영, 마케팅 등의 내용이 추가 되는 교과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귀하는 예술관련 실용교과목을 수강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향후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소양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

주변에서 많이 수강하는 추세여서

예술경영, 마케팅으로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향후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다음 교과목들의 필요한 정도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 이론/개론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공연, 전시 기획/제작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축제 기획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조직 운영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마케팅/홍보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문화정책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예술공간 경영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재무, 회계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실무 문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인턴십(기획, 제작)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마케팅 (SNS, 커뮤니티, 메타버스, NFT, 외)	<input type="checkbox"/>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필요하다	

귀하는 복수전공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수전공을 선택했다면 해당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input type="checkbox"/> 동일 장르/계열 (예술계열) |
| <input type="checkbox"/> 경상계열 | <input type="checkbox"/> 사회계열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귀하는 예술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습니까?

-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해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 충청남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 잘 모르겠다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
| <input type="checkbox"/> 전공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input type="checkbox"/>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해서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졸업 후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술창작 인프라의 격차(시설, 프로그램 등)가 커 보여서
-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해 보여서
- 경제적 처우가 다른 곳에 비해 낮아 보여서
- 생활 여가 활동이 불편해서
- 기타
- 예술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 출신지나 고향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져서
- 무형문화재 혹은 전수관이 있는 곳이라서

졸업 후 충청남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 서울
- 해외
- 경기도
- 제주도
- 전라도
- 서울 외 광역도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 충청북도
- 경상도
- 강원도
- 기타

II. 생활·여가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혼자 (1인가구)
- 부모와 생활 (본인+부모)
- 기타
- 독립된 가정 (본인+배우자/자녀)
- 동료와 생화 (본인+동료)

귀하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 일정한 거처 없음
- 고시원/여관 등 임시거처
- 작업실에 부속된 방
-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
- 기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자가
- 임대 월세
- 임대 전세
- 기타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

- 없다
- 가족의 부채
- 주거비
- 생활비(주거비, 의료비 제외)
- 교육/취업준비비(학자금 제외)
- 기타
- 학자금
- 예비 창업/사업비
- 의료비
- 차량 구입비
-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 | |
|---|---|
| <input type="checkbox"/> 식료품비/외식비 | <input type="checkbox"/>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 <input type="checkbox"/> 의류비/미용비 | <input type="checkbox"/> 교통비/차량유지비 |
| <input type="checkbox"/> 통신비 |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비 |
|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비 | <input type="checkbox"/> 연료비(전기·가스 등) |
| <input type="checkbox"/> 경조사비 | <input type="checkbox"/>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
| <input type="checkbox"/> 교육비/취업준비비 | <input type="checkbox"/> 부채상환비 |
| <input type="checkbox"/> 예술활동비(작품창작 비용)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귀하가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 | |
|---|--|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
| <input type="checkbox"/> 관광 및 여행 |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
| <input type="checkbox"/> TV시청 | <input type="checkbox"/> 게임 |
| <input type="checkbox"/> 쇼핑 | <input type="checkbox"/> 음주 |
| <input type="checkbox"/> 친구만남 | <input type="checkbox"/> 산책 및 걷기 |
| <input type="checkbox"/>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귀하가 조건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 | |
|---|--|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관람(전시, 연극 등) |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관람(야구, 배구 경기 관람 등)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참여(댄스스포츠, 헬스 등) |
| <input type="checkbox"/> 관광 및 여행 |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
| <input type="checkbox"/> TV시청 | <input type="checkbox"/> 게임 |
| <input type="checkbox"/> 쇼핑 | <input type="checkbox"/> 음주 |
| <input type="checkbox"/> 친구만남 | <input type="checkbox"/> 산책 및 걷기 |
| <input type="checkbox"/> 휴식(잠, 아무것도 하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II. 건강·가치관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 | | |
|------------------------|---|--|
| 먹지 않고 식욕이 없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비교적 잘 지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상당히 우울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마음이 슬펐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input type="checkbox"/>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input type="checkbox"/> 가끔 있었다 (1~2일간) |
| | <input type="checkbox"/> 종종 있었다 (3~4일간) |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그렇다 (5일 이상) |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안좋다 안좋다 보통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 없음 1개 질환 있음 2개 질환 이상 있음

귀하는 최근 1년 사이에 건강 악화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응답)

-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실현 건강 긍정적 태도 종교생활
 직업·직장 연인(이성관계 등) 친구·대인 관계 꿈·목표 의식 사회분위기 기타

설문지, 면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알고 있으십니까?

-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귀하는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
-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 기타

하는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예술활동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충청남도에서 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골라주세요.

- 생활안정지원 (예: 창작준비금지원, 보육지원 등)
- 직업역량강화 (예: 예술인 파견지원 및 교육이용권지원 등)
- 예술환경개선 (예: 예술인 신문고, 법률 및 심리상담 등)
- 사회보험료지원 (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원 등)
- 예술창작지원 (예: 창작 및 발표 활동지원 등)
-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예: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예술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 까지 골라 주세요. 기타는 자세히 적어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 <input type="checkbox"/>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input type="checkbox"/> 예술진흥 관련 정부 기관의 기능확대 | <input type="checkbox"/> 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 |
| <input type="checkbox"/>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 부여 | <input type="checkbox"/> 작품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
| <input type="checkbox"/> 전문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예술교육 확대 및 교육제도 개선 |
| <input type="checkbox"/> 전통문화 및 지방문화의 발전 | <input type="checkbox"/> 다른 국가와의 교류 및 홍보확대 |
| <input type="checkbox"/> 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 <input type="checkbox"/> 예술활동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온라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유튜브 | <input type="checkbox"/> SNS (블로그, 인스타, 밴드 외) |
| <input type="checkbox"/> 숨고, 아이디어스 | <input type="checkbox"/>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
| <input type="checkbox"/> 메타버스(제페토, 이프랜드 외)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교육 사이트(클래스101, 소모임, 숨씨당, 프리픽 외) |
| <input type="checkbox"/> 전자책자 발행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온라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아니요

귀하의 예술 활동을 온라인에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기초 교육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기획, 운영, 개발, 마케팅 교육 |
| <input type="checkbox"/> 1인 콘텐츠 (유튜브, 교육 콘텐츠 만들기) | <input type="checkbox"/> SNS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활성화 교육 |
| <input type="checkbox"/> 숨고, 아이디어스 잘 하는 법 | <input type="checkbox"/> 전자책자 발행 |
| <input type="checkbox"/> NFT marketplace (OpenSea, Axie Marketplace 외) | |
| <input type="checkbox"/> 메타버스 아이템, 빌드잇 발행 | <input type="checkbox"/> 기타 |

VI. 개인 관련 사항

성별

여성 남성

연령

20대 미만 20대 30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남도 이외 지역

VI.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성명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이메일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연락처(핸드폰) (응답자 기본정보는 답례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 Q1** 문화 예술계에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경력단절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Q2**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관점을 들려주세요.(예술 작업의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 Q3_2** 해당 예술계가 타 분야의 직업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은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 Q3_3** 예술분야 외 일자리를 계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 Q4** 예술계에서 일할 때, 부당대우나 부득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4_2** 작가로서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해 인맥관리나 지원정책 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Q5** 예술계 내에서 계약서에 관련된 문제가 항상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테면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한다거나 매우 불충분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빈번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체부에서는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예술계 내부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 Q6** 재능기부 혹은 열정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7** 교내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
면담지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Q8 청년 예술인 개념 및 청년 예술지원사업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9 충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9_2 충남문화재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9_3 충청남도의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 이하가 많았습니다. 지원사업에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지원, 방향성, 지속성, 자생력, 활동비, 의미, 정책, 낮은 임금, 교육프로그램)

- 보조금 지원방식(도에서 지원 특이/ 사업부서 재단)

- 예산규모 (인천의 경우/ 청년지원팀) / 지원분야도 문화유산에 편중

Q10 본인의 예술활동에 있어서 작업실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Q10_2 작업실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Q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알고 계시거나 활동증명을 하셨습니까?

Q12 지방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Q12_2 충남에서 계속 활동하실 예정입니까?(계속 활동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까지)

Q13 예술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 운영, 개발, 정산, 세무, 마케팅, sns, 홍보방식, 온라인 기초교육, NFT발행 등)

Q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활동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거나, 활동증명을 이미 하셨습니까?

Q15 근래에는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단 및 기관,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Q16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에 기대하거나 제언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 (예비예술인)

Q17 예술 대학 커리큘럼의 학업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Q18 예술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Q18_2 교외 현장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교육 과정에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Q19 교내에서 선후배간 혹은 교수들로부터의 부당대우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이러한 문제 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Q20 충남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예술관 및 자기 인식

Q21 예술가로서 예술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2 예비 청년예술인으로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Q23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활동하고 계신 분야, 인생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청년예술인 복지사업
- 청년예술인 교육사업
- 청년예술인의 충남도내 정주여건(쉐어하우스 등)
- 예비청년예술인(대학생 등)
- 성폭력, 성평등의 문제
- 부당대우
- 열정페이, 재능기부 개선방안
- 청년예술인의 위한 바람직한 정책(운영방안), 복지, 제도
- 소도시의 예술 격차 해소 방법
-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사업명

* 의견은 항목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구축사업

청년이
바라는
지역문화예술 교:감